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47.86	↑ 코스닥	912.45
	(+1.23)		(+6.95)
↓ 금리 (미국 9년)	3.291	↑ 환율 (원/달러)	1349.40
	(-0.031)		(+2.20)



“집단행동 타협 안해...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논의”

尹, '의대증원' 대국민 담화

2000명 산출, 충분한 논의 거쳐
급격한 고령화 대응 최소한 규모
줄여야한다면 통일된 안 제시를
불법행동, 정부 법·원칙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해 의료계의 합리적 근거제시를 전제로 의대 증원 방안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경 등에 대해 51분간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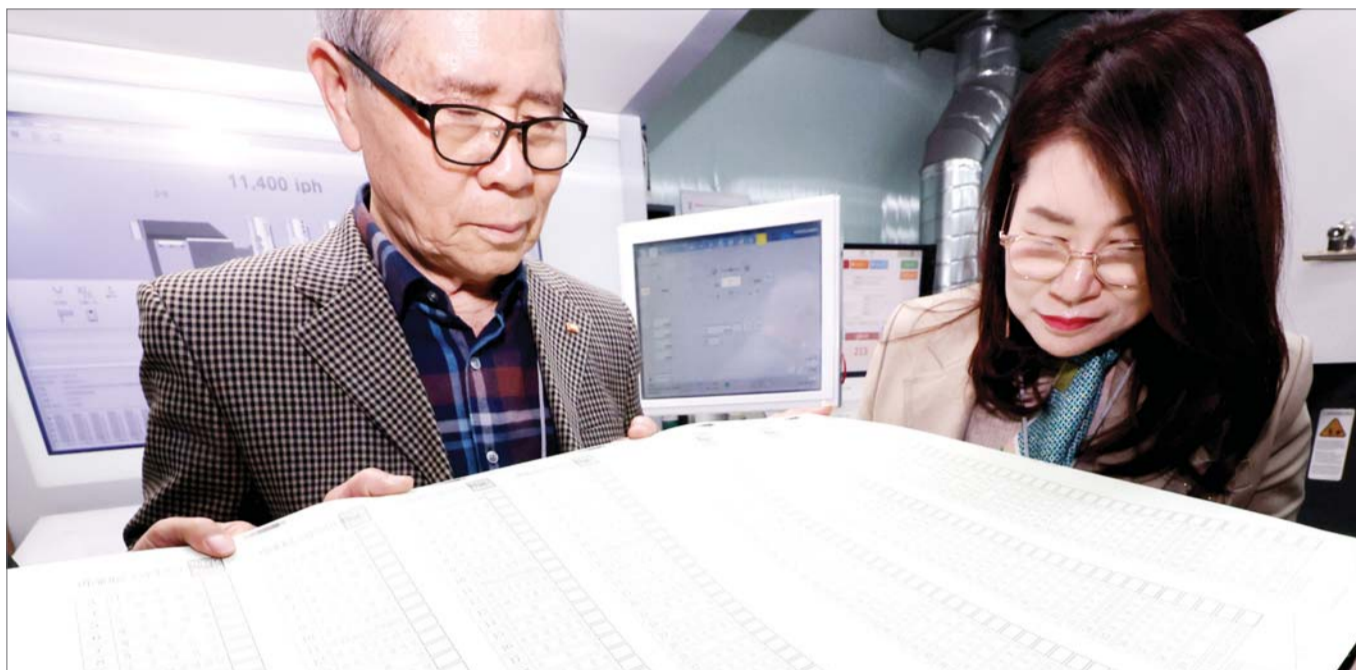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의 단계적·점진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찌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쇄 시작된 총선 투표용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인선 연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들이 투표용지 인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 4·6·8면> /뉴시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불법 집단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년 싸워 9년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4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통신비 압박에 지원도 부진 통신업계, 수익악화 본격화

통신3사, 내년 5300억 매출 손해
중저가 가입자 증가로 수익 줄어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위축 불가피

한국 통신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의 수익 악화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등 통신 설비투자(R&D) 대한 지원은 지지 부진하다. 특히 글로벌 위성통신 선점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은 수십 조원을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절하는 등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SKT·KT·LGU+)가 내년부터 합산 5300억 원의 매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저가 5G 요금제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곧 이통사 매출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46% 수준이었던 5G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 2월 31.3%로 두자릿 수 감소했다. 휴대폰 5G 가입자 점유율

로 계산하면 SK텔레콤(48%)은 연간 약 2500억 원, KT(28%)는 약 1400억 원, LG유플러스(23%)는 약 1200억 원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통신사들의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은 위축되고 있다. 수익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R&D)는 비용을 감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지지부진하다.

◆스페이스X 한국 제외
실제 글로벌 통신 시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인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실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저궤도 위성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신청했지만 두 번 거절 당했다. 국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돼 활용도가 높지 않은 데 비해 투자 비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은 전세계 산업군을 뒤흔들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수백, 수만 개에 이르는 통신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한 ‘위성통신망’을 통해 전세계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도 필요없어 세계 어디서든 위성 통화를 할 수 있다. 이에 산업계 전체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IT품목이 ‘효자’

산업통상부 ‘3월 수출입동향’
수출 3.1% 늘어 565.6만 달러
무역수지 10개월째 흑자 기록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무역수지는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등 IT 품목이 수출 실적 우상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음에도 전년 대비 3.1% 증가한 56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9.9% 증가한 25억1000만달러다.

수출 우상향을 이끈 건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4개 IT 품목이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4개 IT 품목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7% 증가한 117억달러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SSD, +24.5%) 수출도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5.5%)은 3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하며 8개

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고, 바이오 헬스(+10.0%) 수출도 5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3.1%)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조업일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5.0%)와 일반기계(-10.0%)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양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을 비롯해 중남미 등 3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 대중 수출은 105억2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0.4%, 11.6%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아권, 윤 담화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 불통 정부” 맹비난
▲ 여 “김병기,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에 김병기 “허위... 법적 조치” /사진 뉴시스

▲ 한동훈 “이재명, 형수 욕설 드러나자 눈물... 그제 악어의 눈물
▲ 국민의힘 “5세 무상교육 재원, 7000억 추산... 교육청·지자체와 협의”



▲ 여, 윤 담화 두고 설전... “정치 손 떼라” vs “김히 대통령에게” /사진 뉴시스
▲ 여, ‘양문석 편법대출’ 조사 촉구... “새마을금고 관례 아니라고 해”

K뷰티 中企 등용문 ‘CJ올리브영’ IPO·지주사 합병 등 기대감 증폭

작년 매출 3.9조 사상 최대규모
입점 브랜드 ‘100억 클럽’ 30%↑

클렌우드 지분 절반 재매입 결정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반 마련
지주사인 CJ(와) 합병 가능성도



CJ올리브영 ‘명동 타운’ 매장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직원에게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뷰티 업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IPO 상장, 지주사와의 합병 등 다양한 경영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 K뷰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하고 있는 CJ올리브영 지분 22.6% 가운데 절반인 11.3%를 재매입하고 있다. CJ올리브영과 글랜우드는 오는 4월 중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랜우드는 지난 2021년 CJ올리브영 지분 22.6%를 41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CJ올리브영 기업가치는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CJ올리브영이 11.3%의 지분을 얼마에 재매입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현재 CJ올리브영 기업가치를 살펴보면 글랜우드가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CJ올리브영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 따른 분석이다. CJ올리브영 매출은 2021년 2조원 돌파, 2022년 2조 7775억원에 이어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4660억원, 순이익은 3473억원이다.

특히 CJ올리브영이 지난 몇년 간의 사업을 통해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시

장을 평정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경쟁 업체였던 GS리테일의 ‘탈라블라’와 롯데쇼핑 ‘롭스’의 경우 지난 2022년 말 모든 점포를 정리했다. 이마트가 지난 2017년 들여온 영국 1위 헬스앤뷰티 브랜드 ‘부츠’도 국내 사업 3년여 만에 매장을 단았다.

세계 최대 뷰티 편집숍으로 유명한 ‘세포라’도 오는 5월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 세포라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몰에 1호점을 내며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진출한 바 있다.

반면, CJ올리브영의 매장은 1300여 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CJ올리브영은 신진 뷰티 브랜드 발굴, 온라인 채널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뷰티 업계에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어 갈수록 입점 기업과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CJ올리브영 입점 브랜드 중 지난 2023년 100억원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한 ‘100억 클럽’에 해당하는 브랜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같은 기간 CJ올리브영이 집계한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 중 국내

중소 브랜드는 7개다. 이에 대해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산업에서 CJ올리브영의 경쟁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뷰티 업계는 CJ올리브영의 글랜우드 지분 재매입 결정에 따라 CJ올리브영이 2022년 잠정 중단한 IPO 재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22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계획했지만 시장 침체 여파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뷰티 업계에서 CJ올리브영 유가증권시장 입성은 ‘시점’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다”며 “현재 CJ올리브영의 성장세를 미루어 보면 상장을 위한 기반은 마련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증권 업계에서는 CJ올리브영이 IPO보다는 지주사인 CJ(와)의 합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한 ‘신유통’ 사업군은 CJ그룹 4대 핵심 사업으로, CJ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장인화 회장 “과감한 도전으로 초격차·초일류 기업 거듭나자”

포스코그룹 창립 56주년

“한 발 앞서기 위해 기본 다져야
정확한 문제 인식이 도약 출발점”



차전지소재 현장 등을 다니고 있다”며 “회사의 발전과 새로운 비전을 향한 현장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며 역경에 맞선 불굴의 창업 정신과 선배들의 노고가 떠올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초격차,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장인화 회장은 1일 창립 56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 발 더 앞서기 위해 기본을 다져야 한다”며 “위기의 시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와 품질 경쟁력을 갖춰 놓으면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1968년 4월 1일 제철 보국이라는 소명으로 설립된 이후 국내 철강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기존의 철강사업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탄소 전환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차전지 소재 사업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 회장은 “취임 직후 ‘100일의 현장동행’을 시작해 그룹 모태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미래 성장동력인 이

장 회장은 “우리는 지난 56년간 끊임 없는 도전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때 비로소 초격차,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인화 회장은 임원진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박태준 명예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포스코홀딩스의 전신인 포항제철을 일으켜 세운 인물이다. 제철보국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의 창업 건설·경영에 평생을 바쳤다. /양성운 기자 ysw@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1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오른쪽)과 논의하는 모습. /금융위

“오는 7월 시행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문제 해결책 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소상공인 민생금융 신속집행 강조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약속도

“ELS 사태는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ELS 등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장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지주 계열 은행장, 지방은행협의회 의장인 광주은행장이 참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2월 고금리로 대출상환을 해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차환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행들은 나머지 6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

금리 대한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보통료·전기료·통신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학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변화·혁신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를 출자하고,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두배 상향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될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책무구조도는 최근 금융권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5대은행 기업대출 한 달 새 7.5조 늘었다

주택매매 거래 줄자 가계대출 감소
은행권, 기업대출로 영업 확대 노력
경기침체 지속... 건전성 강화 필요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이 이어지며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3억 5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695조 7922억원)과 비교해 2조 2238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가계대출잔액은 지난해 4월(-3조 3915억원) 이후 11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 11개월만에 감소세 전환

가계 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는 전국 5만 7105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8869호 줄었다. 부동산 거래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 말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6조 647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4494억원 줄었다.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대비 줄어든 것도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이동한 영향도 있지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매매 거래가 줄면서 더 크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했다”며 “분양, 전세거래 등 주택 매매 거래가 줄고 있어 당분간 가계대출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한달새 7조 증가

반면 기업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5대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 5415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7조 4975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171조 4743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 3319억원 늘었

다. 증가액은 지난 1월 2조 5200억원에서 2월 2조 8606억원, 3월 2조 3319억원으로 매달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역시 640조 0672억원을 기록하며 전달 대비 5조 1655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은행들이 많아졌다”며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회사채보단 은행대출이 낫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추가대출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대은행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이자여신비율은 5곳 모두 증가했다. 고정이자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나유리 기자

‘에세 체인지’ 성공신화... 차기 경영전략 ‘T·O·P’ 제시

(신뢰·근원 경쟁력·전문성)

유통·식품업계 새 얼굴

4 방경만 KT&G 사장

브랜드실장 등 역임... 성과 입증 기업·주주가치 동반성장 평가 전기식 등 3대 핵심사업 주력 방침



방경만 KT&G 사장

방경만 KT&G 사장 주요 약력

- 1971년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 1998.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채
- 2011. KT&G 비서실장
- 2013. KT&G 브랜드실장 (상무)
- 2015. KT&G 글로벌본부장 (전무)
- 2020. KT&G 전략기획본부장 (전무)
- 2021. KT&G 사업부문장(부사장)
- 2022. KT&G 총괄부문장(수석부사장)
- 2024. KT&G 대표이사 사장 (現)

특히 브랜드실장 재임 시 국내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에세 체인지’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 경쟁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본부장 재임 당시 해외시장별

KT&G의 사령탑이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2015년 백복인 전 대표이사 사장 취임 후 9년 만이다.

KT&G는 지난달 28일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제37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 사장은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방 사장은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 등 회사의 핵심분야를 두루 거치며 사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성을 쌓아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회사의 3대 핵심사업(NGP, 건강기능식품, 글로벌CC) 중심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과 신주주원환정책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통’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맞춤형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진출 국가수를 40여 개에서 100여 개로 크게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사상 최초로 해외 관련사업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또 총괄부문장으로서 해외 관련의 직접사업 확대, 국내외 NGP사업 성장,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을 진두지휘하며 3대 핵심사업(해외관련, NGP,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중장기 성장전략 추진을 주도해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방 사장을 KT&G의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을 이끌 최적 임자로 보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반 성장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주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방 사장은 글로벌 톱 티어로 나아가기 위해 차기 경영전략 ‘T·O·P(Trust, Origin, Professional)’를 제시했다. 적극적 소통으로 이해관계자 신뢰(Trust)를 제고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서 근원(Origin)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과와 성장을 위해 글로벌 전문성(Professional)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방 사장은 KT&G의 수익성 제고를 풀어나가야 한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5조872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1조167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9%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 2015년부터 동결 중인 담배 가격에 더해 각종 규제도 국내 흡연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방 사장은 202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관련 수출, NGP(전자담배), 건기식 등 3대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연간 10조원 매출액 달성을 위한 회사 비전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T&G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필

련 매출 제고를 위해 기존 주력 시장인 중동과 독립국가연합 지역을 기반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KT&G의 해외 담배 판매량은 관련과 전자담배(NGP) 합산 시 613.9억 개비로 국내 판매량(463.7억 개비)을 앞선 상태다. 글로벌 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사내에서 글로벌 전문가로 평가받는 방 사장이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시점이

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T&G 사옥 전경

“지프·푸조 ‘브랜드 하우스’ 강화... 고객 신뢰회복 총력”

인터뷰 스텔란티스코리아 방 실 대표

마케팅·판매정책 등 체질개선 강조 “전기차 전용 인프라 구축할 것”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신임 대표이사가 1일 서울 성북구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가격 안정화와 서비스센터 확장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내에서 지프와 푸조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새로운 수장을 맡은 방실 신임 대표는 1일 서울 성북구 한 레스토랑에서 가장 먼저 풀어내야 할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스텔란티스는 미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과 프랑스 푸조·시트로엥 그룹이 지난 2021년 손잡고 내놓은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이다. 스텔란티스는 지프와 푸조를 비롯해 피아트, 크라이슬러, 시트로엥, DS 등 총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당시 합병으로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매출 극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스텔란티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매출 1895억 유로(약 271조9173억 원)를 기록했으며 순이익 186억 유로(약 26조6895억 원)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기아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방 대표는 “마케팅에서부터 판매정책, 사후서비스까지 전방위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가격

정책 안정화’와 관련해 그는 “상시 할인 프로모션을 지양하고 가격 안정성을 유지해 딜러와의 상생은 물론,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끌어 올리겠다”며 “지난 3월 체결한 우리금융캐피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델별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 고금리 시대에 고객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는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원년 멤버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발을 들였으며 2015년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마케팅, 세일즈, 애프터 세일즈 등을 담당했다.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방 대표는 “지프 어벤저 등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상품성이 검증된 모델 출시로 실용적인 전기차를 고민하는 고객층을 공략할 것”이라며 “전기차보다 연



1일 서울 성북구에서 열린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이사 간담회 행사장에 전시된 더 뉴 2024 지프 랭글러(왼쪽부터),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푸조 408, 푸조 308/스텔란티스코리아

료 효율성을 갖춘 모델을 선호하는 고객층은 푸조 308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을 대비해 전기차 A/S 인프라 확대 및 정비 전문성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 수리 센터를 레벨 1~3으로 구분, 전기차 전문 테크니션이 상주해 전기차 수리에 필요한 특수 공구까지 갖춘 레벨 2에 해당하는 E-엑스퍼트(E-Expert) 센터부터 배터리 수명 관리까지 책임지는 레벨 3E-리페어(E-Repair)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방 대표는 “최근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서영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는 등 전기차 테크니션 양성에 지속 투자해 전기차 전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차 출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와 고객 경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프와 푸조 두 브랜드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하우스’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 대표는 “올해 원주·광주에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 전시장을 열고 원주에 브랜드 하우스 서비스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9개 전시장과 10개 서비스센터를 브랜드 하우스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 대표는 “올해 판매 확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고객과의 만남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전념하겠다”며 “소비자들의 취향은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기에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며, 스텔란티스의 매력적인 두 브랜드로 비단수입차 고객뿐만이 아닌, 국산차 고객들에게도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통신비 압박에...’서 계속

정부 저궤도 지원 강화 통신사 플레이어 관전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원웹 등이 대표적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이다. 최근 스페이스X는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휴대전화 연결 서비스 위성 6개를 지구 저궤도로 발사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티모바일은 물론 캐나다의 로저스(Rogers), 일본의 KDDI, 호주의 옵투스(Optus) 등 8개국 7개사가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한국통신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달 저궤도위성 통신 예타 결과 발표

다만 정부는 최근 저궤도 위성, 6G 등 차세대 통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저궤도 위성통신 R&D에 4800억원을 투입하는 대한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한국이 저궤도위성 사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아직 정책 시행 등 초기 단계로 지켜보아야 할 단계”라며 “다만, AI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의 새로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악수하고, 의지 다지고... 野與, 심판·인물론 앞세워 '승부수'

충선 유세현장 가보니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野 강태웅·與 권영세 '리턴매치'
김부겸 위원장 강 후보 지원 유세
권 후보, 성당·교회서 일정 소화
尹 대통령 국힘 입당 때 가교 역할

“백중세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에 출마한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월 31일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4년만의 리턴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후보는 4년 전 권 후보에게 약 800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강 후보는 일요일 주말 한적한 용문시장 골목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의 옆에는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유세차에 올라 지원 유세를 마친 후 강 후보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시민들과 악수했다. 대형선거를 10번 이상 뛰었을 정도로 선거에 능숙한 김 위원장이 상인들에게 악수를 청하면, 강 후보가 뒤이어 악수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한 마트 앞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대폭 할인된 사과 상자 앞에 섰다. 그는 할인된 사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과 875원' 발언을 연관지으며 높은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다음 행선지인 서울 강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강태웅 민주당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제22대 총선에 서울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 소재 배드민턴장에서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권영세 후보 측

동구로 떠나기 전 강태웅 후보에 대해 “까다롭지만 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 강 후보에 대해 ‘내가 발탁한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유세차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조언하며 떠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는 부활절을 맞아 지역 내 성당에서 미사, 교회예선에 배를 드리며 일정을 소화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

배로,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할 때 가교를 놓았던 여당의 중진이다. 정권이 바뀌며 대통령실도 옮겨온 용산구에서 권 후보도 “남은 선거기간 동안도 2배로 뛰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원래 부동산 현안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했던 지역이다. 마용성은 강남·여의도·광화문 등으로의 진출이 좋고 재개발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곳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소득자와 중산층이 많이 유입된 마용성의 정치 구도 변화를 기대하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수세가 강한 용산 선거구를 제외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과 인물론을 앞세워 마용성 석권을 노린다.

마용성에 걸려있는 선거구는 총 다섯 곳이다. 먼저 현역 노용래 민주당 의원

이 빠진 마포갑엔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와 영입인재인 이지은 민주당 후보의 양자 구도가 치러진다.

마포구에서 자녀를 다 키웠다는 시민 김모씨는 “노 의원이 워낙 오래했기 때문에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다”며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마포읍은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운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의원에서 지역구 후보로 재선을 노리는 장혜영 녹색정의당 후보가 출마했다.

중·성동구갑은 여야의 이름값 있는 여성 정치인끼리 맞붙는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전문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위원장을 역임하며 윤석열 정부와 대립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중·성동구을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경선에서 이기고 4선을 노리는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맡아온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한편, 마포구에서 동쪽, 성동구에서 서쪽에 있는 종로구도 치열하다. 정치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는 동별보수세와 진보세가 뚜렷하게 구분된 곳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광상인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다. 또한, 금대성 개혁신당 후보도 출마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국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힌다”

(조국혁신당 대표)

“윤정권 바뀌야 민생이 바뀐다
민주당 비례정당과 합당 없다”
대권 질문에 “자질 없다” 선그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민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당의 민생 위기 해결 방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권을 바뀌야 민생이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책임은尹 정권에”

그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으로 또는 대립되거나 모순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정책 결정권이 (윤석열 정부에) 있고 예산 결정권이 다 있는데, 거기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뀌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 아니다.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도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부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돌풍을 의식해 ‘물뺀론(지역구 투표에서도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연합 선택)’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일정한 긴장과 경쟁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개의치 않아 했다.

◆총선 이후 합당 가능성에 선그어

조 대표는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연합의 합당 가능성을 묻

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강령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의 차이는 일정하게 있다”며 “예를 들어,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기소 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공통의 과제가 매우 많다.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별로 안전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안조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정당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국회 다수당에 속하지 않고 민주당과 거리가 가까운 조국혁신당이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두당이 합당을 하지 않아야 안조위에서 법안 처리 지원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준수할 것”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실형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대표는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방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광야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종판결에 제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간에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준수하고 감수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권 도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배우자의 전관예우·재산증식 논란에 대해선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 인요환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가족을 치고 아이를 치는 것은 마피야보다 못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공격을 하려면 박 후보를 공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생명걸린 문제 의사 현장복귀 촉구”

>> 1면 '집단행동 타협 안해'서 계속

이어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복귀를 요청했다.

/박태홍 기자



세상 모든 기술이 빛나는 무대 4만 명의 하이지니어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인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국힘 “자체 경쟁력 ↑” 민주 “소상공인 보호” 정의 “부채탕감”

4·10 총선 공약 비교

소상공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끝난 후 치러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크게 들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며, ‘제2의 빙하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보호·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노리고 있다.

◆ 소상공인 매출·경영 지원 이구동성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공약을 먼저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을 2배 상향에 총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한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당별 소상공인 지원 공약 비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매출·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총 28조원 공급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한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 2배 연장 온누리상품권 10조원으로 확대 발행 및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산재보험 지원(2025년) 및 노령소상공인 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 반영 추진 전통시장 주차환경 및 경영 개선,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 마련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및 ‘임대료 분담제’ 추진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 골목상권 도·소매업 쿠팡서비스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고 규모 확대 배달플랫폼과 공정배달료로 소멸하기 좋은 마을상권 조성
육성·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상권 선도, 지역대학에 관련학과 신설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 육성(신산업창업사관학교 입고 소상공인 확대) 소상공인 전용 메이커스페이스 신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및 소상공인 내일채움 공제로 자산 형성 지원 소상공인 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 불경기시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탕감 실시(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 조성 및 부채 100조원 맵) 골목형 상권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 확대 최저임금 보조 및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 가맹점·대리점 갑질금지 및 임대료 완화를 추진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을 실현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차주 공공정보 등재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센터에서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정비 기술교육, 부품지원 및 폐업전환 지원 금융지원체계 구축,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정책자금·상품권 확대엔 한목소리와 ‘로컬크리에이터’로 상권 선도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콘텐츠 강화 野 전문은행 설립 등으로 금융지원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자산형성 도와 정의당, 상생위한 공정배달료 산정 긴급금융회생기금 30兆로 부채매입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 상품을 판매하는 ‘배달플랫폼’을 조성하고 판매자-기사-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배달료’를 산정해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결제 수수료 제도에서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 소상공인 육성·보호 방안에선 각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련한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취약한 소상공

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해 지역의 상권을 선도하고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창업사관학교로의 입학 유도를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체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이밖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핵심 골자는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이다. 녹색정의당은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채 100조원을 맵하겠다고 했다.

또한 골목형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관련 공약에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상공인 회복·재기도 주요 이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것도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였다.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채무 조정 차주의 공공정보 등재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들의 친환경기술 교육을 위해 카센터에서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범야권 지지율 우위 구도… ‘오차범위 밖’ 결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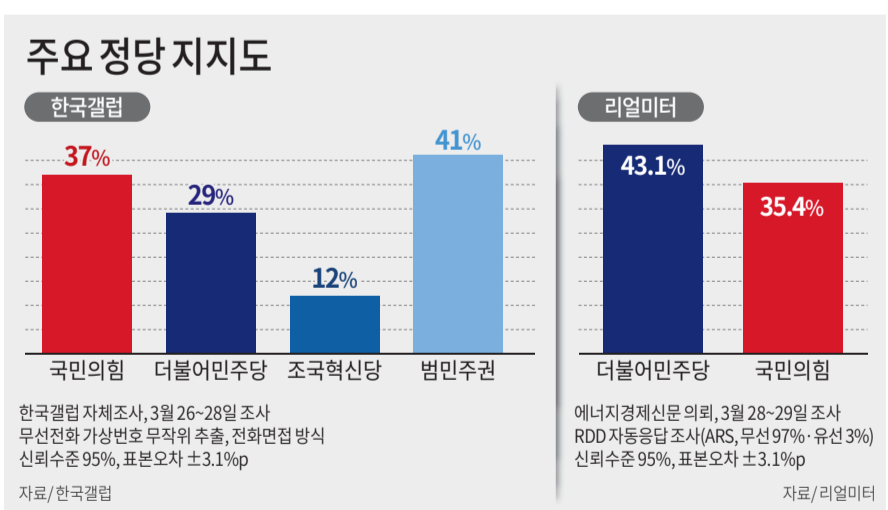
비례정당 투표서도 범민주 우세 정권심판론·尹 부정평가 작동 野 후보 논란 등 반전 가능성 잔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구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5.4%,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43.1%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3.6%, 자유통합당 2.7%, 진보당 1.6%, 녹색정의당 1.4% 순이다.

정당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2월5주차 조사(46.7%)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 35.4%에 이르렀다. 반면 민주당은 2월5주차 조사(39.1%) 이후 회복을 했지만,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43.1%를 기록했다. 아울러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1월4주(국민의힘 36.6%, 민주당 44.9%) 이후 2개월 만이다.

또 리얼미터에서 같은 기간 조사한 비례정당 투표의향을 살펴보면 범민주 우위 구도가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2%, 조국혁신당은 1.8%포인트 상승한 29.5%, 더불어민주당은 1.1%포인트 하락한 19%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8.5%가 된다. 비례정당 투표의향에서

도 여권과 야권의 지지도가 18.3%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셈이다.

한편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37%)이 민주당(2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는 정당지지도 조사에 조국혁신당(23%)이 포함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을 나눠 가진 형태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3월1주차 조사(6%)에 비해 6%포인트 올랐다.

이외에 정당지지도는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순이

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가 아닌 민주당 연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명은 투표의 영향을 볼 때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국민의힘·민주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3월 조국혁신당 등장과 함께 범야권이 확장·급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민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당이 여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10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갤럽의 22대 총선 성격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응답 비율은 40%,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은 49%였다. 갤럽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은 1년간 구도 반전 없이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최근 20주 동안 꾸준히 50~60%대를 오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본투표까지는 8일이 남은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논란에 휩싸이며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집권여당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반전을 시도할 것 같고, 민주당은 악재가 있음에도 대처를 않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양면석 부동산 대출 문제나 김준혁 막달 등 민감한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중도층에게 어떤 반감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무선(97%)·유선(3%)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체 조사로 지난달 26~28일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 **뿐인**
내 편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제 22대 총선 D-8

대통령 대국민 담화 맹폭

“의료붕괴 가속화 책임져야”

더불어 민주당

불통정권 강조... 환자·국민 부담 호소 “질문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사실상 혼시”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밝게 웃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똬리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윤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혼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무상보육·교육 로드맵 구체화

“중앙·지방정부가 재원 분담”

국민의힘

‘무상보육·교육 확대’ 재원 7000억 추산 “내년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앞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무상보육·교육 확대를 제시한 가운데,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 확대를 실행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을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교육 개정교부금을 활용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동 중앙당사에서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이 지원되지만,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52만원, 56만원으로 국가 지원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 결과 사립유치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실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재도 유아 학비와 보육료 국가 지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역할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딥페이크로 영상·음성 조작... 선거 흔들는 ‘AI’

가짜뉴스 제작 등 부작용 심화 사실상 원천 차단방안 없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AI 툴을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히 특정인의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엄정 대응 선언 후 실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생성형 AI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의 대처마저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전 기준 89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총 638건, 1044명이 단속됐다. 딥페이크 관련 사례도 등장했다. 현재 조치까지 완료된 건은 딥페이크를 온라인에 게재한 게시자에 대한 경고 1건과 준수 촉구 1건, 삭제요청이 207건이었다. 딥페이크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SNS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다짐과 달리 딥페이크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별도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네이버는 지난달 28일 생성형 AI 서비스인 클로바X와 CUE(큐:), 딥페이크 관련 결과 화면에 딥페이크 기술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뉴스페이지에서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댓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자체 선거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주의를 받은 기사를 모든 페이지도 선거특집 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 연구도 고도화 중이다.

세계 각국에서 AI를 직접적으로 지목해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데에는 고도로 발달한 AI 딥페이크 및 챗봇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해진 데다 SNS의 발달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확산까지 가능해진 배경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토론회에서 선거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로 AI를 지목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푸틴이 SNS에 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도배한 사건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AI가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게 돼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포털의 조치들이 실제 효과를 얼마나 낼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딥페이크 영상 또는 사진, 음성이 SNS를 통해 확산했을 때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모니터링 AI가 이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생성형 AI는 극소수다. 더불어 화면상 보이는 콘텐츠 자체에는 어떠한 표식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붐이 일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챗GPT를 개발한 미국조차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며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포털이 단순히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역에서 열린 차세대고속열차 명명식에서 열차 공식 명칭인 ‘KTX-청룡’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尹 “속도가 경쟁력...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

신형 KTX 이름 ‘청룡’ 명명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줄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

윤 대통령은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네 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 동시기를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중국發 이커머스 돌풍... 카드사, 신판확대 '기대반 우려반'

알리·테무 등 초저가 무기로 국내 유통시장서 성장 가팔라 카드업계, PLCC 등 제휴 눈독
 중소기업과 본격협력은 시기상조 자칫 상표가치 훼손 우려 높아

AliExpress
 Smart Shopping, Better Living!



국내 유통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TEMU) 등 중국발 이커머스 기업이 입지를 다지면서 카드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상황에 따라 상업자표신용카드(PLCC) 제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구매액은 6조7567억원으로 1년새 2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직구금액 상승률은 121.2%로 조사됐다. 미국(7.3%↓)과 일본(11.0%↑) 대비 증가세가 가파

르다. 중국발 이커머스 기업이 '초저가 전략'을 내세우면서 국내 소비자를 확보한 영향이다.

유통업계의 '메기'가 등장하면서 카드업계 또한 주목하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과의 협업은 '흥행 보증수표'로 분류되는 만큼 신판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인 쓱(SSG), 11번가, 쿠팡 또한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상품을 출시했다.

그간 카드사와 중국이커머스 업체와 협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아울러

중국의 기념일인 '광군절'에 맞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블랙프라이데이를 제외하면 국내 시장과 시의성을 맞추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면 제휴 행사나 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PLCC다. 특정 기업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제휴 업체의 이용자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초저가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대학

생, 사회초년생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도 등장한다.

최근 이커머스 기업과 제휴를 한 곳은 KB국민카드다. 쿠팡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쿠팡와우카드'를 출시했다. PLCC카드는 제휴사의 충성고객을 카드사의 회원으로 유입시키는 데 효과적인 만큼 이커머스 업계 1위 기업과의 협업이 신규회원 확보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KB국민카드의 신규신용카드 회원수는 10만9000명으로 업계 2위를 기록했다. 와우카드를 출시한 10월, 신규회원 11만9000명을 모집하면서 현대카드와 공동 1등을 차지했다. 다음달인 11월에는 신규회원 13만8000명을 확보하면서 국내 카드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유지했다.

지난달 기준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전체 회원 수는 1208만8000명이다.

신용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중 3위다. 2위인 삼성카드(1287만7000명)과의 격차는 6.5%다. 전년 동기 두 회사의 전체 회원 수가 9.2% 차이가 난 것을 감안하면 2.7%포인트(p) 간격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이커머스 기업과의 본격적인 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기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자칫 상표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연내 '알리카드', '테무카드'를 출시하기 어렵다는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여력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는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업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예경탁 경남은행장 취임 1주년... 조직 역량강화·상생금융 심혈

이달 4만 가구 분양 서울 1066세대 공급

전체 기업대출 91%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협력으로 지역재투자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예경탁 BKKB경남은행장

/BKKB경남은행

BKKB경남은행은 예경탁 은행장의 취임이 1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지난 한 해를 '지역경제 생태계에 큰 힘이 되는 은행'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내·외부에 걸친 변화와 혁신에 힘을 쏟은 한 해였다고 소개했다.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해 조직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 상생' 및 '따뜻한 금융'의 가치 실천과 수도권 영업 기반 확대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힘썼다.

경남은행은 특히 상생금융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은행 전체 기업대출의 약 91%인 24조8천억이 중소기업 대출이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 유망산업, 수출기업 등에 2500억 원 규모의 보증한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 경제에 공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은행은 'Connecting wit

h US 행사'를 개최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마련했고, 지역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노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남도와 체결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포용금

융 유공기관 포상'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에도 공을 들였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해 유동성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산건전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재무 안정성 높였다. 비대면 소액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경남은행'을 목표로 각종 뱅킹 서비스 및 내부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지난 한 해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 대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그룹의 비전인 '체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고객의 삶에 함께하는 든든한 은행으로서 변화와 혁신, 상생과 동행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필요한 보장만, 짧고 저렴하게... '미니보험' 뜬다

카카오페이손보, 단기 운전자보험 동협생명, 1년만기 용종진단보험 등 보험사, 소액 단기보험 잇따라 선포

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손쉽게 확보하고 향후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교차 판매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달 8일 운전자보험을 타사 처럼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이 아닌 1~3년 사이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일반보험으로 출시했다.

개인 운전 경력이나 습관 등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원하는 만큼 고를 수 있어 고도화된 보장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고정된 가입 담보가 정해져 있는 기존 운전자보험과 달리 저렴한 보험료에도 충분한 보장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전체 가입자의 49%가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판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가입자 1

만명을 돌파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5월 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을 출시했다. 큰 호응을 얻어 판매건수 1만건을 돌파해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NH농협생명은 "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은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고 1년 만기 구조로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8월 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전용 플랫폼인 '앨리스(ALICE)'를 출시했다. 보험을 고객의 일상 속 위험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시켰다는 방침이다.

앨리스를 통해 16종의 생활밀착형보

험서비스를 판매한다. 출시 4개월만에 계약 2만5000건이 돌파했다. 누적 가입자 130만명, 월간 최대 활성 이용자 수(MAU) 약 37만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1명의 고객이 하나 이상의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앨리스에서 보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 1명이 평균적으로 가입한 앨리스 보험서비스는 1.4개를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한번쯤 필요하다고 느꼈던 담보를 실제로 상품화하고, 직관적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보험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앨리스의 인기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군인보험·레이디보험 등 참신한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디지털 보험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4월 중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4만825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만5192세대) 대비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1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가구수 3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청약 등 제외)은 45개 단지, 총 4만825세대로 조사됐다. 일반분양 규모는 3만4091세대다. 전년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1487세대)와 비교하면 27.5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의 공급실적률은 9%로 집계됐다. 3월 청약률 개편 소식에 따라 계획 물량 자체도 적었고, 마지막 주 계획한 물량도 일정이 미뤄지며 공급실적률이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4196세대가 공급된다. 경기 8821세대, 인천 4309세대, 서울 1066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에서 분양되는 단지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복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 I·II'가 총가구수 2512세대로 가장 규모가 컸다. 김포시 북변동에선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1200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효성동에만 물량이 집중됐다.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3BL)'에서 3053세대의 대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407세대)', 영등포구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659세대)'가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은 2만6629세대가 공급된다. ▲광주 6400세대 ▲부산 4778세대 ▲경남 4135세대 ▲대전 2308대 ▲전북 2251세대 ▲강원 1855세대 ▲충남 1518세대 ▲전남 1272세대 ▲대구 1098세대 ▲울산 1014세대 순으로 분양이 예정됐다.

/김대환 기자 kdh@

김승연 “우주시대 앞당겨 미래세대 희망 될 것”

〈한화그룹 회장〉

한화에어로 대전 R&D 캠퍼스 방문 차세대 발사체 단독협상자 선정 축하 참여 연구원들에 격려·편지 등 보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9일 우주 사업의 ‘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방문해 사업 현황 등을 꼼꼼히 챙겼다.

김 회장의 이번 방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협상자 선정을 축하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는 발사체 전 분야의 개발 수행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발사체 개발센터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그룹의 우주 사업 통합 브랜드스페이스 허브를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도 함께 했다.

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누리호 고도화 및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주역인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며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또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 직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그룹

협상자 선정을 축하하면서 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우주시대를 앞당겨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회사는 전했다.

임새민 선임연구원은 “누리호 발사마다 회장님께서 주신 격려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 한화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1차 발사 당시 격려 편지를 가져와 김 회장의 친필 서명을 받

도 했다.

김 회장은 누리호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격려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 대부분이 그 대상으로 김 회장에게 셀카 촬영을 요청하며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게 될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25년으로 예정된 4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으로 우주 전문 기업으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우주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누적 약 90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집행해왔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자체 기술 확보와 독자적 밸류체인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통한 우주수송을, 세트랙아이와 한화시스템은 인공위성 제작 및 위성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우주 사업 밸류체인을 확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순천 울촌 산단 내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을 갖고 현재 한창 건설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센터가 완공되면 민간 체계종합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중대형 발사체 전문 기업으로서 독보적 역량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국가 우주 사업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글로벌비스

‘카타르 LNG’ 수주 신규 성장동력 확보

현대글로벌비스가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기업 카타르에너지로부터 LNG 해상운송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카타르 국영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LNG 해상운송’ 입찰에서 총 4척의 LNG 해상운송 계약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일본 선사 K라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각 선박은 17만4000㎥ 규모로, 현대글로벌비스와 K라인은 2027년부터 해당 선박들을 공동 운용한다.

카타르에너지는 세계 최대 LNG 기업이다. 현재 연간 7700만톤인 LNG 생산량을 2030년 1억42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LNG 운송 시장에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자동차 운반 중심의 해운에 이어, 최근 LPG와 암모니아 해상운송에도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LNG 해상운송까지 더해 가스 운송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LNG 수요가 2030년까지 25~50%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석화업계, AI 활용해 디지털기술로 생산성 높인다

롯데케미칼 “AI 적용 효율성 극대화” 한화솔루션, 신소재 개발에 AI 활용 LG화학, 전 영역 디지털 변혁 추진

국내 석화업계에 AI(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화업계가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석화업계 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AI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간 반도체, 통신업계 등 AI와 사업 연관성이 높은 업계에서는 관련 거론이 잦았으나 산업 특성상 접점이 적은 석화업계가 AI를 키워드로 제시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사장은 지난 1월 시무식을 통해 “AI 트랜스포메이션 준비를 통한 시장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이끌어 내자”라며 사업 전 영역에 AI



LG화학 여수 CNT 1·2·3공장 전경. /LG화학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월 AI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AI를 활용해 기초소재사업과 첨단소재사업 부문 특성에 맞춘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AI 조직 신설을 위해 지난 2023년 말 롯

테케미칼은 데이터 엔지니어와 IT 인프라 관리 경력사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다양한 신소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학술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억개 이상의 화학식을 수집해 초거대 AI를 학습시켰다. 초거대 AI가 화학물질 데이터를 통해 화학식을 이해하기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신소재 후보 물질의 화학적 특성을 빠른 속도로 예측해 상업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인재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발 관련 인력을 채용해 수십명 규모의 DT실 조직도 구성했다.

LG화학은 제조 영역부터 법무·환율 등 영업 전방위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실시간 제품 품질 예측을 위해 온도, 압력, 유량 등 공정 센서 정보를 활용해 품질 관리 및 공정 안정성 향상에 AI를 활용

하고 있다. 예컨대 AI 기술을 통해 기저기 등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SAP) 물성 예측값을 계산하고 제품 가공에 용이하도록 적정 함수율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계약서를 자동 검토하고 수정하는 AI 계약검토 솔루션을 도입해 단일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했다. 또한 회사는 LG그룹이 지난해 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개최한 ‘해커톤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석화업계는 AI를 활용한 석유화학 공정의 탄소 최적화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 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품목에 석유화학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탄소 감축 기술은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글로벌비스가 운용 예정인 LNG 운반선과 동일한 규모의 선박.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협찬 ‘한시적 규제유예’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영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강도를 낮춘다.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한다.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차현정 기자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에코프로, 불황 극복 ‘원가혁신 TF’ 구성

향후 2년 내 30% 절감 목표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원가절감과 조직문화 혁신에 착수한다.

에코프로는 오창 본사에서 진행된 2분기 조회식을 통해 원가는 절감하고 조직문화는 업그레이드하는 ‘Cost down, Change up’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세부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향후 2년 동안 코스트를 30%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지주사 및 가족사들이 참여하는 원가혁신 TF를 구성했다.

원가혁신 TF는 가공비, 원재료비, 투자비 및 생산성 3개 분과로 구성돼 주요 제품별 원가를 분석하고, 현재 수준을 평가해 향후 2년 내에 총원가 3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임직원들에게 절감액의 상당

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는 연초에 수립했던 가족사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대폭 수정해 원가절감 등 혁신 지표를 대폭 반영해 재수립하고 있다. 혁신지표 달성 여부가 연말 사장단 및 임원 인사의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에코프로가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착수한 건 전방산업 부진과 광물가격 하락으로 초래된 경영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가 절감 목표액을 주요 KPI로 설정

하고 이를 평가 및 성과급 지표로 활용키로 한 건 구조성이 아닌 실행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최고경영층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도전, 신뢰, 변화와 혁신의 에코프로 기업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혁신은 고객과 시장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고객 앞에 좀 더 겸손하고 고객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혁신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 **green**
Festa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 베지노믹스페어 



정부, 中企 DX 지원책 직접 마련 '정보부족·비용부담' 고민 해결

중기부 '스마트서비스' 참여사 모집
총 165개 기업 선정... 솔루션 구축

KT, '커스터마이징EZ' 서비스 제공
SKT, AI CCaaS·카피라이터 출시
엔씨소프트, 바르코 스튜디오 활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기업의 디지털전환(DX)을 촉진시키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 DX에 팔소매를 견고 지원에 나섰다. 특히 DX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용문제로 고민 중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직접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DX를 돕는 데에는 전환했을 때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 고용 직원의 업무 과다 해소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최근 3년 여 사이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하자 이를 접목한 기술 개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DX 전환 비용이 줄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군도 넓어진 배경도 있다. 또 갈수록 줄어들 생산인구에 대한 대응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기업 핵심 업무에 대한 DX 솔루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규 구축 150개사, 고도화 15개사 총 165개사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 핵심 서비스 업무에 대한 ▲서비스(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개 유형에 대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간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전환(DX)은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이제는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KT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및 확산에 나섰다. KT는 선정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그룹웨어인 '커스터마이징EZ'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기업은 서비스 도입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제훈 KT Enterprise통신사업본



클라우드 센터.

/유토이미지

부장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비용 문제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커스터마이징EZ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는 기업 내에서 단순히 업무 의사소통 체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직·간접적인 업무 보조 및 처리까지 이르고 있다. 가장 빠른 DX를 이어가는 전통적인 물류 산업 등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등에서도 빠르게 DX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상황이나 일러스트나 음악 등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까지 소화하면서 기업 구성원의 노동강도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SKT는 최근 구독형 AI 컨텍스트 'S KT AI CCaaS'와 광고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카피라이터'를 출시했다. AI CCaaS는 콜 인프라부터 상담, AI 솔루션, 인력 운영, 시스템 운영 대행 등 AICC 운영시 필요한 기능과 솔루션을 한 번에 지원한다. AI 카피라이터는 월 수만건 이상의 광고문구를 생성해 고객사 플랫폼에 즉시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SKT 측은 "수많은 상품에 대한 광고나 관측 문구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흡소핑이나 온라인 쇼핑물 등 커머스 업계 마케터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마케팅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또한 업무 일부를 솔루션에 맡기고 있다. 올해 자체 언어모델(LLM)인 '바르코(VARCO)'를 기반한 창작 도구 '바르코 스튜디오(VARCO

Studio)'를 개발 과정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바르코 스튜디오는 이미지 생성물 '바르코 아트(VARCO Art)', 텍스트 생성 및 관리물 '바르코 텍스트(VARCO Text)', 게임 내 인공지능 NPC(논플레이어블캐릭터) 및 챗봇 제작을 위한 '바르코 아바타(VARCO Avatar)' 등 기능이 포함되었다.

정부가 내놓은 DX 지원책의 대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데에는 대기업과 달리 이들의 비용부담이 특히 크고 DX에 관한 정보나 트렌드 파악도 다소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지원책이 상담과 계획, 구축 지원인 이유 또한 DX 도입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를 돕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성공적인 DX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입에 따른 효과와 기업 내 구성원들이 경험할 변화하는 노동 방식, 실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DX 도입 및 정보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수출기업 51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8%가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중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답변이 88.7%를 차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업계 최초로 네온가스 재활용기술 개발

반도체용 특수가스사 TEMC와 협업
불순물 제거 등 분리·정제 특성 활용
네온 회수율 72.7%... 77%까지 목표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업과 협업해 업계 최초로 네온(Ne) 가스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

SK하이닉스는 1일 반도체용 특수가스 기업 'TEMC'와 협업해 한 번 사용한 네온의 불순물 제거 등의 분리 및 정제 특성을 활용해 네온 재활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렸다.

네온은 희귀 가스 중 하나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필수적인 엑시머 레이저 가스의 주요 성분이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입에 의존해 온 네온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소부장 기업과 함께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서 약 1년 만에 성과를 냈다.

양사는 노광공정 이후에 스크리버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던 네온 가스를 수집 탱크에 포집하고, TEMC의 가스 처리 과정을 통해 네온만 선택적

으로 분리해 정제했다. 스크리버는 반도체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 화합물 등을 걸러내고 제거하는 장치다.

정제된 네온은 다시 SK하이닉스로 공급되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된다. 현재 네온 회수율은 72.7%에 이른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제 수율을 개선해 네온 회수율을 77%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네온 재활용 기술이 반도체 공장에 적용될 경우 연간 400억원의 네온 구매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네온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만2000tCO₂e/yr(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 줄이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이 같은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네온, 중수소, 수소, 헬륨 등 4개 가스 소재와 황산 등 화학 소재 등 총 10개 원자재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LG유플러스 SOHO 신규 솔루션 출시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왼쪽부터) LG유플러스 정승현 SOHO사업담당, 박성울 기업사업그룹장(전무), 전영서 기업서비스개발Lab장. /LGU+

LG U+, '우리가게패키지 AX솔루션' 출시

전화, 예약 등 솔루션으로 편의성 ↑

LG유플러스가 소상공인 전용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앞세워 기업간거래(B2B)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소상공인들의 매장을 AI가 적용된 관리솔루션으로 디지털화해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방문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소규모 자영업(SOHO) 고객 특화 통합 솔루션인 '우리가게패키지 AX(AI를 통한 디지털 전화)솔루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장 관리 솔루션들은 전화예약, 주문, 키오스크 결제 등으로 구분돼 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전화예약은 A, 주문 키오스크는 B 두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든다. 특히 방문고객 데이터도 A사와 B사 별도로 수집돼 데이터 기반 특별 서비스를 내놓기도 어렵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우리가게패키지 AX솔루션을 내놨다. 이는 ▲U+AI전화 ▲U+AI예약 ▲U+웨이팅 ▲U+키오스크 ▲U+오더 ▲U+포스트 등 총 6가지로 구

성된다.

고객 매장 상황에 맞춰 필요한 솔루션만 골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화서비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상품 모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AI전화와 U+AI예약은 AI를 기반으로 손님들의 단순 문의와 예약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U+AI전화 솔루션은 매장 위치, 영업 시간 등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자동으로 대답한다. U+AI예약은 U+AI전화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등 다른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예약도 한 번에 관리해 준다.

U+웨이팅은 점심시간 등 자리가 없어 손님이 대기해야 할 때 줄을 서지 않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올 상반기 내 전화와 예약을 연동할 예정이다. 매장 대기 및 취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후 고객 관리 기능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U+키오스크와 U+오더(테이블 오더 서비스) 매장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박성울 LG유플러스 그룹장(전무)은 "최근 단순히 매장에 DX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토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게패키지 AX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 CNS, 신한銀 모바일앱 속도 4배 향상

차세대 뱅킹시스템 '더 넥스트' 구축

LG CNS가 신한은행 차세대 뱅킹시스템 구축사업 '더 넥스트(The NEX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모바일 비대면 앱 SOL뱅크의 이용자 체감 속도가 약 4배 빨라지는 성과를 거뒀다.

1일 LG CNS는 올해 2월 전국 신한

은행 영업점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오는 5월까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5월에 시작한 더 넥스트는 기존 신한은행 시스템을 차세대 뱅킹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LG CNS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신한 솔(SOL)뱅크,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 차세대 전환 ▲차세대 시스템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전 검증 등을 진행했다. 특히 소비자 접점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코어뱅킹'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시스템을 여러 개의 계층(Layer)으로 나누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설계해, 시스템 전체를 수정하지 않고도 특정한 계층의 기능이나 서비스를 개선·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모바일 비대면 채널 SOL뱅크의 이용자 체감 속도가 약 4배 빨라졌다.

/김서현 기자

금 펀드·ETF 수익률 ‘고공행진’

금 한 돈, 소매가 41만원선 돌파
금리인하 등 연말까지 강보합 전망
“일시적 되돌림 약세장 주의해야”

금값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금에 투자하는 펀드·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급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하는 만큼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되돌림 약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펀드 약 37개 가량의 한 달 평균 수익률은 12.57%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0.68%에 그쳤지만 근래 들어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도 크게 오른 모습이다.

세계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지난해 금 매수는 총 1037톤으로 전년보다 4%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1082톤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금 매입량을 보였다. 올해도 금 선호가 유지된 만큼 금값은 연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한국표준거래소 기준 금 한 돈(3.75g) 소매 가격이 41만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 달 전 37만1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10% 이상 오른 셈이다.

더불어 국제 금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259.17달



최근 국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돈에 41만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골드바를 진열하고 있다. /뉴시스

러까지 솟구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금값 폭등의 원인으로는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꼽힌다. 이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시장에서 오는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자가 없는 금에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6월 이후 금리인하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며 “이를 선반영하려는 명목금리의 하락은 실질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인 금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 가격의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던 만큼 일시적인 가격 조정, 약세장 등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은 연말까지 강보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나, 현재 가격은 밴드 상단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6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미 달러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이 유효하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고 경기 침체 우려도 제한돼 금 가격이 일방적으로 오를 장세는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금값의 조정 시기를 이용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금 가격 조정은 장기 투자 비효율대를 위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하이투자증권, 조직개편... ‘리테일·PF’ 강화

성무용 신입대표 체제 첫 개편
미래혁신단·PF금융단 신설

하이투자증권이 조직 쇄신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하이투자증권은 성무용 신입대표이 사 취임 이후 변화와 쇄신, 리테일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변화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을 위해 경영전략본부 산하에 미래혁신부를 신설했다. 신속한 조직 진단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처, 시너지 창출 추진 등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회복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리테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쇄신을 단행한다. 조직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리테일총괄 산하의 본부를 수도권영업실, 영남영업실, 영업지원실의 3개실로 개편했으며, 유연하고 강한 리테일의 도약을 위해 임원진을 전면 교체해 리테일 영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대면 영업과 비대면 영업의 유기적인 협조와 융합지원을 위해 디지털마케팅부와 투자솔루션부도 디지털 솔루션부로 통합했다.



하이투자증권 전경.(왼쪽사진) 성무용 하이투자증권 대표 /하이투자증권

더불어 부동산 PF 관련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PF금융단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실 등 부동산 PF 관련 4실을 PF금융단 소속으로 배치해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 등 PF 위기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본부를 투자심사실로 변경했다.

성 대표이사는 “조직 쇄신과 혁신을 통해 당면한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그룹 내 시너지 영업 활성화를 통해 하이투자증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한화투자증권, ‘K방산 기술혁신 펀드’ 결성

한화그룹 협업... 차별화 운용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3월 29일 국내 유망 방위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한화-원의 K방산 기술혁신 투자조합 펀드’ 결성 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과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주관하는 방산 기술혁신 펀드 2호 위탁운용사(GP)에 선정돼 425억원 규모 펀드 모집을 진행했다.

‘한화-원의 K방산 기술혁신 투자조합’은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기업 또는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출자약정액의 60% 이상 투자), 우수기술기업(투자집행 금액의 80% 이상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

할 계획이다.

또 이번 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로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한화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투자 전 기술검증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펀드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원의 K방산 기술혁신 투자조합’ 출자에 참여한 방산 기술혁신 펀드는 방위사업청 주도로 조성된 방산 분야 최초 정책형 펀드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자금 전담은행인 하나은행 출자로 조성된 펀드이다. 그밖에 우리은행, 경상남도, B 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캐피탈 등 주요 금융권과 지자체가 ‘한화-원의 K방산 기술혁신 투자조합’ 출자에 참여했다.

/원관희 기자 wkh@

中 경기회복 기대감... 화장품 대장주 ‘고개’

유커 증가... 업계 전반 실적개선 전망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주가 6% 급등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각 전 거래일보다 6.34%, 6.58%씩 상승했다. 이외에도 토니모리(13.52%), 코스맥스(8.24%) 등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6.2%(약 15억1500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7.7%

늘어나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귀환과 함께 화장품업계의 개선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4만 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동월 대비 76% 수준까지 회복됐다.

배송이 미래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LG생활건강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 아모레퍼시픽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며 “대중국(면세·중국) 실적이 우려 대비 선방하면서 고마진 채널인 면세의 성장과 중국 적자 축소 효과로 인한 수익성 회복이 나

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면세 시장은 전년 동기보다 10%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 현지의 1~2월 누적 화장품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보다 4% 성장했고, 38부녀절 행사도 작년보다 추세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배 연구원은 “수요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브랜드별 제품 전략 성과도 기대된다”며 “이번 분기 리뉴얼 및 신제품 수요가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추세적으로 확인된다면 브랜드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예탁원, 적격외국금융회사 안내자료 발표

“한국 국채 등 투자수요 확대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법인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 신청 및 운영 안내자료’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는 QFI를 위한 실무지침서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QFI를 통한 국채 등 투자소득 비과세 도입 후 외국금융회사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QFI 신청·승인·운영·업무처리

등 외국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투운용, 반도체 투자 가이드북 발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ETF를 활용한 반도체 투자 가이드북(사진)’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반도체 산업 투자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은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뉜다. 첫 번째 챕터 ‘반도체 산업 이해하기’에서는 반도체의 종류와 반도체 생태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 등을 전한다. 두 번째 챕터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는 엔비디아, TSMC, ASML, 도쿄 일렉트론, 삼성전자 등 각국을 대



표하는 기업이자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 11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마지막 챕터는 ‘반도체 투자, ACE ETF’이다. 해당 챕터에서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PI us SOLACTIVE ETF ▲ACE AI반도체포커스 ETF ▲ACE 일본반도체 ETF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 등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보유한 반도체 ETF 4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도체 투자를 ETF로 하면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韓-파나마, 폐기물 관리에 맞손... 중남미 진출 '교두보' 구축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파나마시티 현지 매립장 개선 모색
신규 매립시설 마련 등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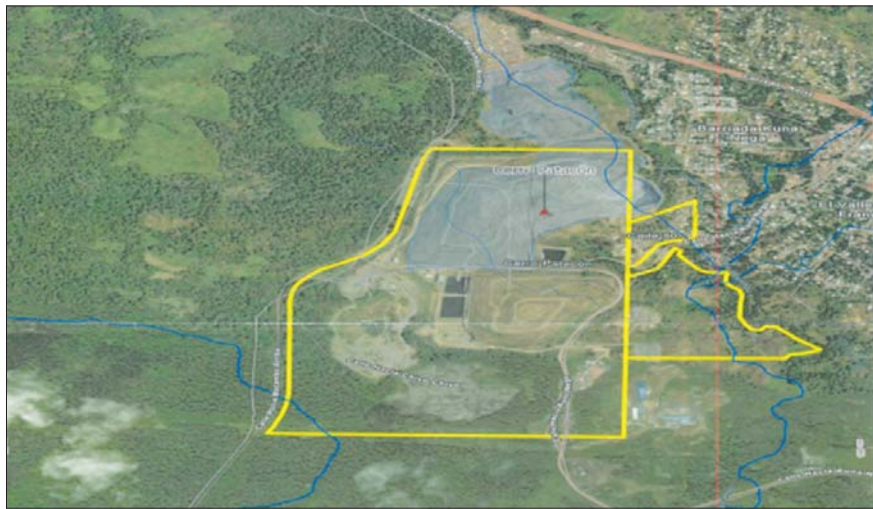
우리 정부가 파나마 현지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관한 협약을 시작으로 매립지 개선 부문 등의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환경부는 1일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서 녹색산업 협력단(해외 환경난제 현지진단팀)을 과견(현지시간 4월 1~3일)해, 한국-파나마 환경부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MOU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파타콘'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로파타콘매립장의 주요문제점은 △복도불량(폐기물 노출 및 다짐불량)을 비롯해 △매립가스 포집정 불량(개수 및 상태불량) △매립사면 불량(급경사 및 폐기물 노출) △침출수로 유출 등 비위생 등이다. 화재 반복으로 파나마 정부가 지난해 4월 환경비상상태를



파나마 파나마시티 인근에 자리한 '세로파타콘 매립장'.

/환경부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한 바 있다. 세로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같은 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1일(현지시간) 파나마 환경부 청사에서 체결하는 협약으로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재활용,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감축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파나마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일에는 파나마 도시·주택위생청(AUD) 청사에서 도시·주택위생청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열고, 현지 매립장 환경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수요로 발굴된 세로 파타콘 매립장 관리문제 개선을 위한 신규 매립시설 마련 및 기존 매립환경 안정화 등 대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출·수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 환경난제 기반의 유망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탄색산업추진단장은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두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2월 설 대목에 온라인쇼핑 11% 늘어난 19조

상품군별, 농축수산물 증가폭 48%

올해 2월 농축수산물 부문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설 명절 맞이 대규모 할인행사 등의 영향이다. 또 여행·교통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11.0%(1조8856억 원) 증가한 18조 97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 특히 농축수산물 증가폭이 48.9%(3572억 원)로 가장 컸다. 이는 2021년 1월(63.8%) 이후 37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설 연휴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도 21.6%(3801억 원) 증가

했다. 2월 기준 여행 및 교통서비스 2조 1369억 원이었다. 총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하는 음·식료품 거래액도 전년동월 대비 20.9%(4451억 원) 늘어난 2조5787억 원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날짜 수가 적어 거래 규모 자체는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라면서도 "전년동기 대비로 보면 명절과 연관이 있는 상품군들이 전년 대비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기기는 21.7%(1536억 원) 줄었고, 화장품 거래액도 11.7%(1275억 원) 감소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6%)이 가장 컸고, 이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11.3%), 음식서비스(10.9%)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통계청, 지방소멸 대응·균형발전 강화

지역통계 활용 강화 등에 업무협약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세종에서 '지역통계 활용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거기반 의사결정 수단인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산된 다양한 지역통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류·관리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근거기반정책결정을 지원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정과제 120번(지방소멸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 체계 강화)에 포함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과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약은 지역단위 통계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지역통계 활용 우수 사례의 공유·확산, 균형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선 공동연구 등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탕·찌개도 고령자친화식품으로 지정

농식품부, 34개사 176개 제품
고령자 모두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그간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올해 범위를 국과 탕, 찌개류까지 확대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



정부세종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품)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단계 90개, 2

단계 12개, 3단계 74개이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비중이 크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 비율이 11.7%에서 6.5%로 줄었고, 혈당·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이 감소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올해부터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저수용량 키워 집중호우 대응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저수지 준설사업'을 1년 전보다 확대해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뭄·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의 퇴적물을 파내어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해 가뭄을 해소함과 동시에 홍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3429개소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88%에 해당하는 3024개소로 노후화돼 있다"며 "장기간 토사 퇴적으로 물그릇이 작아져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대응 능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폴리텍대 협약반, 취업률 100% 육박

채용 기업 특화 교육훈련·우선 채용

기업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협약반이 청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원익큐엔씨 협약반 수료생 취업률은 각각 97.1%, 98.7%에 이른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약을 통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한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시 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

권 정보기술 직군으로 진출했다.

특히 전체 수료생 중 56.9%에 이르는 비전공자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며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대 1, 2023년 19.2대 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반도체 퀴츠웨어(반도체 제조 공정 소모성 부품)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와 협약해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 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 원: 충청북도
- 등 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특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동시통역제공)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동시통역제공)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중기부-외교부, '원팀 협의체'로 中企·벤처 해외진출 지원

법인 설립·사업 시에 걸림돌 되는 현지 법, 제도 등에 실질적 도움

외교부,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 중기부, 수출·스타트업 정책 결합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외교 역량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 (원팀 협의체)를 구축,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원팀 협의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20~25개 공관에 우선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지 법, 제도, 규제 등에 관해 재외공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영주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간 지원 협약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오영주 중기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조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가가는 민생·경제의 교"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유·무형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기부는 수출·

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내용에는 ▲재외공관에 원팀 협의체 구성 ▲공공기관·민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결집 ▲외교부·중기부, 유관기관·협·단체, 민간기업,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참여하는 국내 지원 협의체 별도 구성 ▲현지 기업·기관에게 정책 정보 적시 제공 ▲해외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에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공동사업 확대 ▲중소기업 등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하는 공적 개발원조사업 추진 협력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은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대사가 현지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3개월마다 진행하는 정례적인 기존 협의체도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이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하자는 게 협의체의 요체"라면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네트워크가 많은 재외공관이 이번 MOU와 후속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애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수출·진출을 위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도 출동한다.

기보와 창진원은 외교부 산하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창진원의 틱스(TIPS), KOICA의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그리고 기보의 CTS 기술보증 등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간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 공동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또 기업 해외진출·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의 중점을 뒀다"며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업계,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기중앙회 "절박함 외면 않길" 청구인에 中企단체 등 305명 참여 처벌수준 합리화·규정 명확화 요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

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305명이 참여했다. 청구 비용은 청구인들이 각각 부담하고 중기중앙회 등 단체는 간접 청구인으로 참여해 자료료 등을 부담한다.

중기중앙회 정운모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

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자리엔 중기중앙회 배조용 수석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승기 상임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노섭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운모 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석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이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

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추가 검토 중이다. 앞서선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지난해 매출 3138억... '업계 1위' 등극

영업익, 319억... 전년비 170% ↑

시몬스가 1992년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침대 업계 1위'에 올라섰다.

1일 시몬스에 따르면 지난해 313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 매출은 2858억원으로 10%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시몬스 침대는 업계 1위였던 에이스침대의 매출(3036억원)을 뛰어넘으며 1위에 올랐다.

영업이익은 2022년 118억원에서 지난해엔 319억원으로 170% 늘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같은 기간 4%에서

10%로 증가했다.

시몬스는 매출 상승 요인으로 ▲300만원대 이상 프리미엄 매트리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 'N32'의 비약적인 성장을 각각 꼽았다.

객단가 1000만원 이상의 '뉴티레스트 블랙' 역시 2016년 출시 후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월 판매량 300개를 돌파한 이후 매달 평균 300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 N32는 침대업계 최초로 전 제품에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비건 인증까지 획득하며 ESG경영에 민감한 요

즘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닿았다는 분석이다. 국내 프리미엄 폼 매트리스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N32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시몬스 관계자는 "불경기에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 매출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영업이익률이 신장한 것은 지난해 비상경영 체재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TV광고비를 대폭 삭감해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건비·지급수수료·물류비·임대료 등 원가율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여전히 (영업이익률)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4개 시중銀과 中企 혁신성장 지원

국민·농협·우리·하나銀 참여

기술보증기금이 4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국민·농협·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역동적 혁신성장 및 세계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은행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신성장 4.0 전략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에 적극 동참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4개 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원을 재원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5억원을 기반으로 5071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은행은 보증료 일부(0.5~0.7%p ↓, 은행별 지원율 및 지원기간 상이)를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으로 최대 857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매운맛 좀 볼래?”… 외식업계, 맵부심 저격 신제품 ‘봫물’

하림 ‘장인라면 맵싸한 맛’
하바네로 등 세계 4대 고추 엄선
농심 ‘신라면 더 레드’
제품 정체성 유지, 매운맛 강도 ↑
팔도·SPC삼립 마라 맛 시장 공략



데미식 장인라면 맵싸한 맛. /하림



고단백 닭가슴살바 마라맛. /SPC삼립



마라왕비빔면. /팔도

식품업계가 봄 시즌부터 각기 다른 개성과 취향으로 매운 맛 경쟁을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 맥방 유튜브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매운맛 챌린지’ 영상이 SNS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식품업계가 매운 맛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맵부심(매운 맛을 즐기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트렌드에 힘입어 매운맛 국물라면 시장은 2021년 1905억원에서 2023년 2076억원으로 2년 동안 7% 빠르게 성장했으며, 2022년 매운맛 국물라면은 7160억원 규모의 전체 국물라면 시장에서 2680억원을 차지하면서 매운 맛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매운맛 열풍은 국내만이 아니다. 2021년 유럽 시장에 이어 2022년 미국 스페셜티식품협회(SFA)에서 식품 트렌드로 선정할 만큼 매운맛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면업계, 더 맵고 다채롭게

1일 업계에 따르면 매운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라면업계는 매운 맛을 강화한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림은 최근 ‘데미식 장인라면 맵싸한 맛’을 출시하며 매운 라면 시장에도 전장을 던졌다. 부트졸로키아, 하바네로, 청양고추, 베트남고추 등 매운 맛으로 유명한 세계 4대 고추를 엄선해 최적의 비율로 조합했다.

매운 맛의 강도를 수치화한 스코빌 지수를 보면 ‘데미식 장인라면 맵싸한 맛’ 8000SHU에 달한다. 이는 농심이 앞서 선보인 ‘신라면 더 레드’ 스코빌 지수보다 높은 수치다.

농심은 지난해 7월 신라면보다 2배 매운 ‘신라면 더 레드’를 출시했다. 소비자들의 매운맛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개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신라면 정체성인 ‘맛있는 매운맛’을 지키기 위해 매운맛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고기와 표고버섯 등 재료를 보강해 진한 국물의 맛도 한층 끌어올렸다.

지난해 8월 국물라면 브랜드 ‘맵탱’을 선보인 삼양식품은 올해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스트레스 해소, 해장, 기분전환 등 각 상황에 적합한 매운맛을 완성하기 위해 화끈함, 칼칼함, 알싸함, 은은함 등 다섯 가지로 매운맛을 세분화해 선보였다.

◆특유의 얼얼함 ‘마라’ 제품도 쏟아져

마라는 매운맛을 내는 중국 사천 지방의 향신료로 ‘저릴 마(麻)’, ‘매울 띵(辣)’을 의미하는데,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한 맛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육두구, 화자오, 후추, 정향, 팔각 등이 사용되며 얼얼하면서 독특하고 이국적인 매운맛이 특징이다.

마라맛은 2010년대 후반, 10대와 20대 사이에 마라탕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대중화됐다. 신한카드가 자사 고객의 마라탕 전문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9월 마라탕 전문점을 방문한 신한카드 이용자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는데 이는 마라 트렌드 열풍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팔도는 이달 초 ‘팔도마라왕비빔면(이하 마라왕비빔면)’을 출시했다. ‘마라왕’은 팔도가 새롭게 선보이는 자체 라면 브랜드다. 비빔장의 특유의 감칠맛과 함께 혀끝에 남는 알싸한 매운맛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마라맛에 대한 시장 수요도 앞서 검증했다. 올해 초 출시한 ‘킵뚜경 마라맛’ 한정판 70만 개는 출시 1개월 만에 완판됐다.

SPC삼립은 지난 14일 ‘고단백 닭가슴살바 마라맛’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선보였던 블랙페퍼, 청양고추, 갈릭 맛에 이은 신제품으로 젊은 소비층의 니즈를 반영했다. 국내산 냉장 닭가슴살을 8시간 저온숙성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며 달걀(특란) 한 알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피자알볼로도 지난 13일 ‘마라 치즈 오븐스파게티’와 ‘마라 웬&봉’을 출시했다. 4월 중 쿠팡이츠, 요기요를 통해 출시 기념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1020세대를 중심으로 맵부심과 마라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기존 한국적인 얼얼함과 더불어 얼얼함까지 더한 매운맛의 카테고리도 넓어지고 있다”며 “업계도 변화하는 식문화에 반응, 고객의 니즈를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신메뉴 출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랜드, LF 씨티닷컴 ‘던스트’ 중국 진출 돕는다

중 법인 설립·인프라 등 지원 공략
24 FW 시즌부터 본격적 영업 전개



상하이 E이노베이션밸리(EIV) 중점. /이랜드

이랜드월드가 중국네트워크와 상하이 E-이노베이션밸리(EIV) 인프라를 활용해 LF 자회사 씨티닷컴가 운영하는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Dunst)의 중국 진출을 돕는다.

이랜드는 상하이 민항구에 위치한 E-이노베이션밸리(EIV) 한·중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던스트를 운영하는 씨티닷컴의 중국법인 설립 및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함께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랜드 EIV는 한·중 비즈니스 센터의 1호 브랜드 던스트를 시작으로 유통·소비재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LF의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출발해 2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씨티닷컴은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브랜드 론

칭 5년 만에 매출 400억원을 넘으며 10배 넘는 급성장을 이루어내며 MZ세대를 중심으로 두터운 팬덤을 구축했다.

던스트는 한국에서의 인기와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홀세일 첫 시즌부터 해외 각국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이어져 현재 미국·캐나다(미주), 이탈리아·프랑스·영국(유럽), 중국·홍콩·일본(아시아) 등 20개국의 유명 백화점 및 온·오프라인 편집숍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음에도 티몰글로벌에서 지난해 56%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11월 여성 의류·액세서리 카테고리 매출 1위, 스토어 팔로워 19만명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중국 현지의 인기를 기반으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한 던스트는 올해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중국 직접 진출을 공식화했다. 24 FW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던스트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과 현지화를 돕는 파트너로 이랜드가 함께한다. 이랜드는 지난해 준공 완료된 상하이 EIV를 거점으로 LF의 자회사 씨티닷컴의 중국 현지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중국비즈니스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던스트는 E-이노베이션 밸리에 거점을 두고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하게 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지난달 30일 주한미군기지에 위치한 대형 식료품점에서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미군 대형 식료품점서 식물성 만두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주한미군기지 내 위치한 대형 식료품점에서 식물성 만두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식물성 비비고 왕교자 3종(오리지널,잡채,김치)’이다.

주한미군기지는 미국령으로 분류돼 미군에서 인증한 미국산 고기가 들어있는 만두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미국 슈완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항공 및 해상으로 운송·수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식물성 왕교자 제품 입점을 계기로, 재고 수급의 문제 없이 고기가 들어있는 제품과 함께 동일한 맛품질의 만두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미군부대 식료품점에서 미군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비고 식물성 왕교자 3종을 시식하는 론칭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만두를 시작으로 주먹밥, 냉동김밥 등 다양한 식물성 제품들을 미군기지 내 식료품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칠성 ‘크러시’, 카리나와 2차 광고 선포 SSG닷컴, 로봇청소기 ‘나르왈’ 단독 판매

‘내가 원하는대로 편하게’ 메시지

롯데칠성음료의 새로운 맥주 ‘크러시(KRUSH)’가 모텔 에스파(aespa)의 카리나와 함께 두 번째 광고를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하는 동영상 광고는 화려한 무대 밖으로 나온 카리나가 복잡한 네온사인 거리를 지나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맥주 ‘크러시’를 통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첫 번째 공개한 광고에서는 기존 맥주와 선 굵는 4세대 맥주 ‘크

러시’의 등장을 알렸다면, 이번 광고는 기존 음주문화가 가진 낡은 분위기를 타파하고 ‘크러시’만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술을 강요하거나 불편한 술자리 분위기가 조성되는 기존의 낡은 문화와 다르게 ‘내가 원하는대로 편하게 마시는 맥주’라는 ‘크러시’ 브랜드 메시지의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2분 분량의 풀 릴름 및 숏폼 형태의 추가 영상 6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오늘 오후 8시부터 ‘쓱라이브’ 시작

SSG닷컴은 2일 오후 8시부터 7일까지 로봇청소기 ‘나르왈(Narwal)’ 랜더스데이 대표 상품을 단독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2일 오후 8시부터 자체 라이브커머스 채널 ‘쓱라이브’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프레오×울트라 완성형 올인원 로봇청소기’ 상품을 최대 혜택가 12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는 선착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나르왈’은 현재 대표 로봇청소기 브

랜드로, 쓱닷컴이 브랜드 런칭 초기부터 적극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5월 SSG닷컴에서 라이브방송을 진행해 인지도를 높였고 지난해 12월 라방에서 8억원이 넘는 매출고를 올리며 라이징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대표 상품인 ‘프레오×울트라’는 물걸레 청소, 물걸레 자동세척, 진공 청소, 열풍건조 기능이 포함된 올인원 로봇청소기다. 세탁기에 적용하던 직배수 키트를 국내 최초로 로봇청소기에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최빛나 기자

유통업계, 새로운 수장들

KGC인삼공사, 안빈 신임대표

“‘글로벌 윈 마켓’ 전환 추진”

해외, 압도적 성장으로 이익극대화
국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신성장 사업확대 통한 재도약 도모



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6% 줄어 800억원을 기록했다.

KGC인삼공사의 홍삼 관련 제품 수출액은 지난 2019년 1333억원, 2021년에는 1782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점 판매 부진 등 수익원이 줄며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KGC인삼공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안빈 KGC인삼공사 글로벌본부장(사진)을 대표이사(사장)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안빈 신임 대표는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졸업 후 2000년에 KGC인삼공사에 입사해 업무 경력을 쌓았다. 2010년 KGC인삼공사 인천공항지사장, 이듬해 마케팅전략부장을 지냈다.

이후 2016년에는 KGC인삼공사 브랜드실장과 화장품사업실장을 겸직했다. 2020년 코스모코스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22년 KGC인삼공사 글로벌본부(CIC)장을 역임했다.

안빈 신임 대표는 “글로벌 톱티어 종합 건강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외 시장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글로벌 윈 마켓’ 관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해외는 압도적인 성장으로 이익극대화를 추진하고, 국내는 가맹사업을 필두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으로 재도약을 이끌어 전사 수익성 혁신과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7년까지 ‘연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KGC인삼공사는 수익성 개선이 급선무다. KGC인삼공사 매출은 2018년도 1조3255억원에서 지난해 1조2234억원으로 5년간 7.7% 역성장했

KGC인삼공사는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사업 확대를 통한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은 중국과 미국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국가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1655억원과 4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비 각각 47%, 2.5% 증가한 수치다.

KGC인삼공사는 지난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적중해 고성장을 통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정관장 전문 매장과 약국, 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총 1만여 개의 채널에 입점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상해 R&D센터를 통해 현지 수요에 대응할 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작년에 개소한 미국 R&D센터에서도 현지 제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프라퍼티, 서철수 신임대표

역량확충·내실 다지기 ‘박차’

국내 대체투자·리츠 분야 최고 전문가
스타필드 등 스폰서 리츠 선별 계획
우량자산 공급 파이프라인으로 경쟁력 ↑



표 선임을 시작으로 운영 체계 정립, 전문인력 강화 등 역량 확충과 함께 내실 다지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후 모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핵심 자산인 스타필드 등을 기초로 하는 스폰서 리츠를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신세계프라퍼티의 우량자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동시에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참여를 통해 시장에 안정적인 리츠 상품을 공급,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가 서철수 전 NH농협리츠운용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리츠 사업 진출 본격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신세계프라퍼티가 100% 출자한 부동산 자산 관리(AMC)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설립 초기 단계인 만큼 회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리츠 운영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부동산과 금융 부문에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서철수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서철수 대표는 지난 2018년 NH농협리츠운용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NH프라임리츠와 NH올원리츠를 상장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국내 대체투자 및 리츠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KDB 산업은행 자금부, PF실 등에서 근무 후 한국투자신탁운용 SOC 본부장, 실물 자산운용본부장을 거쳐 대체투자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투자관리 부문에 매진해 왔다.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는 서철수 대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리츠 및 투자관리 전문가로 업계에서 정평 난 서 대표 영입을 통해 스폰서 리츠 시장에 좋은 범형(範型)을 선보임과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시작으로 리테일 시설은 물론 주거 및 오피스와 결합, 중소형빌딩, 시니어 하우스, 동서울 터미널 재건축, 화성국제테마파크 도시 건립 등 다양한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리츠AMC’ 플랫폼인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유동화, 이를 신사업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클리 국내 출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등 치료제
솔리리스, 연간 치료비용 4억 달해
오리지널비 약가 절반수준으로 인하



‘에피스클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에게 처방해 바이오시밀러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성분명: 에쿨리주맙)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해 아스트라제네카가 판매 중인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다.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용독 증후군 등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에 쓰인다.

무엇보다 솔리리스는 성인 기준 연간

스는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기준 병당 513만2364원이던 약가를 절반 수준인 251만4858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이는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솔리리스 약가 360만원에 비해서도 약 30% 저렴한 금액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월 국내에서 에피스클리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유통 및 판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직접 담당한다. 또 에피스클리를 처방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3년에는 에피스클리를 유럽 시장에 출시하기도 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케어, 신임 대표이사에 김진태 씨 선임

수익성 강화·신사업 발굴 집중



장을 거쳐 지난 2018년에는 지오영 그룹 총괄사장을, 2022년부터 최근까지는 한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GC(녹십자홀딩스)의 헬스케어 자회사 GC케어가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 수익성 강화와 신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GC케어는 지난 3월 29일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진태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진태 신임 대표이사는 IT, 금융,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맥킨지와 현대카드 등에서 전략·운영·마케팅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특히 ADT캡스와 티몬 부사

김 대표는 앞으로 GC케어에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며 회사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GC케어는 기업용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전화 상담 기반의 기업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어떠케어’ 등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에스아이빌리지, ‘빌리지페스타’ 진행

최대 30% 적립·80% 할인

신세계인테리어서늘이 운영하는 자체 디지털 플랫폼 ‘에스아이빌리지’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 상반기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빌리지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e포인트로 적립해주며 명품백부터

니치 향수, 럭셔리 골프웨어 등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빌리지페스타에는 ▲마르니, 메종마르지엘라, 에르노, 아르마니, 알렉산더왕 등 럭셔리 패션 브랜드 ▲제이린 드버그, 필립플레인골프, 뷰오리 등의 스포츠웨어 ▲스튜디오 톰보이, 보브, 지컷 등 여성복 ▲바이레도, 아워클래스, 로라메르시에 등 니치 향수 및 화장

품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국내외 인기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주요 행사로는 최종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e포인트로 돌려주는페이백 이벤트가 있다. 신세계인테리어서늘이 자사 브랜드의 경우 ▲50만원 이상 구매 시 30% ▲20만~50만원 구매 시 15% ▲20만원 미만 구매 시 10%를 적립해 준다. 입점 브랜드는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 7~15%가 차등 적립된다. 기존 정례 행사 대비 적립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빛나 기자

6년 연속 모델 재계약 체결

아모레퍼시픽의 컨템포러리 서울 뷰티 브랜드 ‘헤라’가 글로벌 아이콘 제니와 브랜드 활동을 이어간다.

헤라는 제니와 6년 연속 모델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헤라는 지난 2019년부터 제니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해 지금까지 헤라만의 서울 뷰티와 문화를 제니와 함께 전파하고 있다.

제니는 음악, 패션,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니 특유의 개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활동하고 있는 선구적인 아티스트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헤라는 제니가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전파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 공개한 서울리스타 브랜드 캠페인 영상에서 제니는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넓혀가는 진취적인 태도로 오늘날의 서울리스타를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청하 기자

Very Special
FRESH BERRY



논산딸기주스
 Nonsan
 Strawberry Juice
6,900

논산딸기 베리라떼
 Nonsan Strawberry
 Berry Latte
6,900

논산딸기
 바나나스노우
 Nonsan Strawberry
 Banana Snow
6,9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판매상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오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을 방문해,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등 농수산물 판매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혜옥 세화미술관 이사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태광그룹 세화미술관은 서혜옥 이사장(왼쪽 네번째)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서 이사장은 세화예술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광그룹



BBQ, 홍콩 학생·교사들에 K-푸드 우수성 전파

제너시스BBQ 그룹은 최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치킨대학에서 홍콩 세인트 조셉 칼리지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총 41명이 기업 탐방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들은 치킨대학 시설 투어를 시작으로 K-푸드의 우수성과 BBQ 치킨의 역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배울 수 있었다. 동시에 치킨을 조리하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외식 산업 현장도 함께 체험했다. /제너시스BBQ



신한은행, 우즈베키스탄 해외봉사단 발대식

신한은행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봉사단은 신한은행 직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오른쪽)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에게 해외의료봉사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신한은행

한화오션

필립 레비 해양사업부장 임명 (前 SBM 오프쇼어 지사장)

한화오션이 해양사업의 전략적 변화를 위해 필립 레비(사진) 전 (前) SBM 오프쇼어(Offshore) 미국 지사장을 신임 해양사업부장으로 임명했다.



필립 레비 신임 해양사업부장은 25년 넘게 SBM 오프쇼어에 근무했다. SBM 오프쇼어가 세계 해양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에너지어린 회사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필립 레비 신임 해양사업부장은 글로벌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수많은 석유·가스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오션 해양사업부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연문필의 푸드톡톡

7080세대에게 자장면은 어린 시절 생일이나 졸업식날이 되어야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었다. 그들 부모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외식은 낯은 낯만 같았다.

그들이 대학생이 될 즈음엔 '경양식집'이라고 부르던 곳이 번성했다. 미팅이라도 하는 날에는 하얀테이블보에 가지런히 놓인 포크와 나이프로 마주 앉은 미팅 상대에게 어색한 숨쉴을 애써 감춰가며 긴장한 채로 돈가스나 비프스테이크를 잘라야 했다.

경양식 시대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기업형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도입되자 시민들의 발걸음은 가족단위로 움직이게 됐

외식사업의 착시현상

다. 지금은 사라진 국내 굴지의 백화점 유통기업인 미도파그룹이 미국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를 일본에서 벤치마킹해 서울 서초동에 직영1호 점포를 필로타워입으로 연 것이 국내 기업형 외식 역사의 효시다.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던 중 미국의 전문 외식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고 센트럴킨친 전문설립 업체가 공사를 진행해 수도권 지역에 그야말로 최첨단 시설의 CK(센트럴킨친)을 준공했다.

지금의 공유주방 시스템, 온라인 마켓과 배달 플랫폼 세대인 MZ세대에게는 옛날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센트럴킨친은 그 당시만 해도 외식 업계는 물론 식품생산 전문기업조차 개념을 모르던 상황이 었기 때문에 초대 공장장이었던

필자가 그랜드 오픈하던 날 초대 받은 외식 업계에 몸담고 있던 산업체, 대학 외식조리학과 교수, 식재료 공급사 등 유명인사(?)들에게

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현장 경험이었다.

예상치 못한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국가는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났고 모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기업인수합병 사태까지 발생했다. 필자가 공장장으로 재직했던 센트럴킨친 역시 IMF 외환위기 태풍의 공습을 피해 갈수는 없었다. 그 당시에는 강제적인 규제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선진국 기준으로 구축했던 친환경 냉동설비가 오히려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어 원가절감 측면에서 값싼 친환경 냉매를 값싼 냉매로 대체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의 특징은 본사에서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주들을 모집해서 개인이 가맹본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기탁하

고 표준화된 식자재와 운영매뉴얼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는 두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실하고 정직한 가맹본사의 '상생정신'이다. 가맹본사의 무리한 영업이익과 매출확대로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각종 혜택이 무시되거나 불공정거래 형태로 변질된다면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계약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가맹점주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외식업은 예상보다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에 처음 입문하는 경우에는 자영업보다 검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고 '잘되겠지'라는 착시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막연한 기대감보다 어떤 가맹본사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재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YK, 이인석·박재완 영입... "DC센터 역량 강화"

(디지털콘텐츠)

"양질의 법률 서비스 균질하게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디지털콘텐츠센터(DC센터)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박재완 파트너변호사(38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하는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이인석 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평가받는다.

DC센터 부센터장은 맡는 박재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송무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고 ▲항공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 ▲기업 총수 관련 배임 사건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소송 사건 등 기업, 방위 산업, 행정, 공공계약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다.

YK는 이인석 대표변호사와 박재완 변호사의 영입으로 DC센터 역량 강화에 나선다. DC센터는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YK는 DC센터 소속 10명의 변호사가 전국 27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중이다. 이후 DC센터 확대에 맞춰 이를 디지털 데이터화해 인공지능(AI)이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은 기존 서면 작업에 발생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영입을 통해 새롭게 발을 내딛는 DC센터의 업무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규춘 기자 ch9720@

대한항공

뉴욕 취항 45주년 맞아

대한항공이 미국 뉴욕 노선 취항 4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3월 29일(현지시간) 뉴욕 존F.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탑승객 대상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인천행 대한항공 KE082편 45번째 탑승수속 승객에게 인천~뉴욕 왕복 프레스티지 항공권 1매를 증정했다.

또 이날 KE082편 탑승객 전원에게 뉴욕 취항 45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한 예코백도 증정했다. 오는 4월 4일 뉴욕 맨해튼에서는 이진호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 현지 주요 인사 및 대리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1979년 3월 29일 서울~뉴욕 정기 여객편을 처음으로 띄웠다. /양성운 기자

인사

- ◆유한양행 (신임) ◇대표이사 사장 △이영래(유한화학) ◇부사장 △김재훈(유한크로락스) (재신임) ◇대표이사 △박종현(유한크로락스) △김상철(유한메디카) △강덕현(와이즈메디)
- ◆동국제약 ◇부사장 △ETC사업본부 강종환 ◇전무이사 보 △R&D본부 박신정 △신제품개발실 유기용 △개발기획실 이희자 △재무기획실 김홍기 △헬스케어Beauty사업부문 함명진
- ◆일동홀딩스 ◇부장 승진 △김효섭 △이보라 △이성행
- ◆일동제약 ◇부장 승진 △김동섭 △김민주 △김승호 △김영권 △김영민 △김영민 △김유진 △박기철 △여기향 △오유진 △윤여성 △이종성 △장민욱 △최성우 △최원석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부장 승진 △이정윤
- ◆유니기획 ◇국장 승진 △윤윤오 ◇부장 승진 △이태제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판로정책과장 김현동
- ◆광주드림 ◇광주드림 △전남본부장 겸 선임기자 정진탄
- ◆시사플러스 △(주)보림산업·(주)보림 VINA 부회장 심일보 시사플러스 편집국장/대표
- ◆신영증권 ◇부사장 △WM/자산배분 총괄 김대일 ◇전무 △리서치센터 김학균 △헤리티지기술루션본부 오영표 △자산배분솔루션본부/Operation본부 천신영
- ◆메트라이프생명 ◇전무 △오피레이션(Operations) 담당 김수연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담당 김지은 △CPC 담당 조기상
- ◆쥬서한 ◇승진(상무) △이기용(soc본부) ◇승진(이사) △나영식(건축팀장)
- ◆NSP통신 ◇편집국장 △편집국장·총괄 이사 박광선 △총괄부사장 류수운 △전무이사·주필 박광선 △정치경제 국장·

- 전국취재본부 총괄본부장 강은태
- ◆세종문화회관 ◇팀장급 △공연제작1팀장 김아림 △발레제작팀장 조해진 △공연장운영팀장 김지민
-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급 △선진원자로연구소장 조진영
- ◆한국애비비 ◇승진 △이사 서상덕 부장, 박찬일 부장, 김옥진 부장
- ◆KCTV제주방송 △경영본부장 김기정 △방송본부장 김석범
- ◆팬스타그룹 ◇이사대우 승진 △여객사업본부 전세크루즈팀 유다중
- ◆동신대학교 △입학처장 최찬현
- ◆우리금융캐피탈 ◇전무 승진 △리스크관리본부 이기홍 △기업금융본부 장창엽 △IB투자금융본부 김춘경 ◇상무 선임 △경영지원본부 주현중
- ◆신한라이프 ◇부사장 승진 △윤용지 원팀 팀장 박정우 △투자관리팀 팀장 최보형 ◇부사장 전보 △글로벌사업팀 팀장 최수성

기아

'진로투어' 참가자 모집

기아가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에게 첨단산업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아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 프로그램 참가자를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기아가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기아인스피어링 클래스'의 일환으로 글로벌 융복합 연구개발(R&D) 허브인 판교테크노밸리 주요 기업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는 학급당 최대 30명까지 접수 가능하며 지방 및 농산어촌 지역 학교를 우선 선발한다. /양성운 기자

총선용 의대 증원이 아니라면



**한용수의
둘썹구**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첫 단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해당 인원은 현재까지 7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는 석연치 않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

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지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수다.

정부의 대화 의지를 기대했던 의료계도 이날 담화에 대해 후회하며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체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논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을 앞두고 2개월째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민 대부분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해서 지금의 의대 증원 논의에서 여론이 정부에 박수만 치는 건 아니다. 이날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57.5%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벌어진 의료 공백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의대 재학

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면서, 새 학기 이후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 재학생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54.5%를 기록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지역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일부 개원의도 집단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미 각 대학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배분한 상태다. 2025학년도의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에 사회적 혼란이 크다. 정부도 의대 증원이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당장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후속 지원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hys@metroseoul.co.kr

넷플릭스가 거대해질수록 그림자도 커진다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글로벌 OTT가 쏘아올린 공이 국내 방송·제작사의 위기로 돌아왔다.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작사와 방송사들은 이들이 끌어올려놓은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작비 내역 중 단가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 있는 항목으로 '배우 출연료'를 지적했다.

최근 드라마 회당 제작비는 15억~30억원 수준으로 2019년 드라마 회당 제작비 5

억~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 방송사 중에는 SBS가 드라마 제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당 15억원이 최대치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 시리즈 회당 제작비는 30억원을 훌쩍 넘는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제작에 1회당 3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연료다. 과거 1회당 1억원 수준인 출연료가 크개는 8억원까지 상승하다보니 배우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늘어나는 제작비와 배우 출연료로 인해 기존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배우들의 높아진 출연료를 맞춰줄 수 없는 데다 국내 방송 광고 시장까지 축소되면서 드라마 편성까지 줄어든 상황. 이에 방송·제작사에 투자가 줄어들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드라마 제작 건수는 2022년 141편에서 지난해 125편으로 역성장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어 100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라마 제작이 줄면서 조연, 단역 배우들은 설 자리도 잃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향후 4년간 한국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중 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 전무한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 확대가 방송·제작사와 OTT 시장에 악순환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 제작비의 110%를 주고, 지식재산권(IP)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비는 지급하되 향후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식이다.

/tree8834@

오늘의 운세 4월 2일 (금 2월 24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배우자의 과소비와 사치를 줄여보도록. 48년생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60년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72년생 걷기 운동은 필수일 듯. 84년생 매너와 도덕을 지키니 내 마음이 편하다.
-  **소** 37년생 손님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오니 하루가 즐겁다. 49년생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룬다. 61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나 결실을 이룬다. 73년생 밤중에 비단옷 입고 활동하는 격. 85년생 반려견과 나갈 때는 다른 반려견을 주의.
-  **호랑이** 38년생 집안에서 경제에서 세대교체. 50년생 소질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게 인간사회. 62년생 휴일 없이 종일 바쁘다. 74년생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갈피를 못 잡는다. 86년생 소풍을 하러 가더라도 사전 준비를 하고.
-  **토끼** 39년생 나이가 들어 요행을 바라다가는 큰코다칩니다. 51년생 경륜과 인생 지식이 갖추어져야 할 듯. 63년생 질문에 대해 변경거리를 찾기 말자. 75년생 자신의 특기를 자랑으로 생각하나 별거 아니다. 87년생 골치 아픈 인연에 엮이지 말 것.
-  **양** 40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52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자. 64년생 구름 속의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 76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피서를 떠나 기분전환. 88년생 부부도 결국은 남끼리 만난 것.
-  **땀** 41년생 자식에게 참을 만하면 참을 수밖에. 53년생 남은 기간 회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구상하자. 65년생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마라. 77년생 크루즈 여행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89년생 시대 관계에서 사수이와 다른 예상된다.
-  **말** 42년생 시골로 가서 산다는 계획은 불편을 예상해야. 54년생 자녀 결혼 혼수 문제로 머리가 지끈. 66년생 나를 백설 공주로 착각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 78년생 연인에 앞서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90년생 남자 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  **고양이** 43년생 운이 있으니 부동산거래를 해도 좋다. 55년생 워드 준비를 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이다. 67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79년생 유능한 선배를 따지지 않도록. 91년생 조상 천도제를 올려보자.
-  **원숭이** 44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56년생 인내가 쉬고 있으니 조직에서 손실. 68년생 강을 무사히 건넌다면 배도 소중히 간직. 80년생 시작은 안 하고 불평만 가득하니. 92년생 배우자의 남매백이 심한 가정사로 애가 탄다.
-  **닭** 45년생 다정다감 지나치면 병이나 가족에게 잔소리를 삼가라. 57년생 재혼에 기대보다는 기술 습득하는 길을 찾자. 69년생 반려 아기를 키우려면 자긍심을 확인해야 할 듯. 81년생 월급으로 심보보험을 계약. 93년생 영 끝보다는 청약 저축을 가입.
-  **돼지** 46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집수리 일을 마무리. 58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는 날. 70년생 재혼자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서운함도 더 클 듯. 82년생 중매가 들어오니 선택을 해보자. 94년생 직장생활에서 배우는 실질적인 노하우가 감소.
-  **돼지** 47년생 건강할 육체에 건강함이. 59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굵다. 71년생 불평보다는 웃어야 복이 온다고 했으니. 83년생 상사에게 억지보다는 할 일을 하고 나서. 95년생 말을 만들어서 이간질하게 되면 꼭 그 화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

김상희의 四季

팔자에 자손 점지



얼마 전 지인의 시부상을 연락받고 문상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코로나 때는 문상 가는 것도 어려웠으나 요즘은 언제 그랬던냐 싶게 다시 예전의 장례식장 모습으로 복귀했다. 조문실 옆으로 길게 놓인 조화는 가시는 분의 자손들이 사회에서 나름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느라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당사자가 임종을 맞으면 오히려 문상객의 수가 그만큼도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장례야말로 산자의 영향력이 더 발휘되는 현장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제사를 존중하던 우리 선조들은 성공하는 자손 훌륭한 자손을 그리도 염원했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출산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거늘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성장 동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전 세계 국가 중에 한국의 출산율을 저조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경종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팔자의 지인은 베트남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거리와 백화점에는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기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이 시끌벅적하여 소꿉이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이들로 붐비는 모습이 부러웠는데 한국의 저출산율에 대한 걱정이 오버랩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사주명리학에서 자손을 두는 운을 판별할 때 팔자에 자손궁이 건재해야 하는데 정편관이 아들에 해당하며 편관은 나를 극하는 음기운이라 하여 칠살(七殺)이라는 별칭으로 정의한다. 칠살은 꺼리기도 하지만 아들이 잘되어 아버지 자리를 극하는 이론은 타당할 것으로 "아들로 하여 극을 당함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통변된다. 단, 편관의 자리에 나를 도와주는 길신이나 희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올 때 그렇다. 금의환향하는 자식을 두는 형국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정답은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8	4	1					
3		1				5	9	6
4						3	8	7
				3	4			
			2	8				
		6	7					
9	6	3						1
8	1	5				9		4
		7		9		8		5

7	5	1		6	3			4
			4		5			6
		9	4					
4			2			3		
			8			1		
			5		6			9
						4	7	
	1		3		4			
8			5	9		7	3	6

9	8	6	1	2	7	3	8	4
4	7	9	6	5	1	8	2	3
1	9	2	8	7	6	5	4	3
8	7	5	1	6	9	4	3	2
6	1	9	8	7	2	3	4	5
2	3	7	1	8	9	5	6	4
7	8	9	1	5	6	2	4	3
3	6	5	7	2	1	8	9	4
2	8	1	6	7	9	8	5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08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전남 4개소 선정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

국비 214억 등 총 306억 투입
보성·무안·강진·진도 선정
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도모



여수국가산단 아름다운거리.

/전남도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인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보성 미령, 무안 일로, 강진 마량, 진도 고군 농공단지가 선정돼 국비 2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추진한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4개 핵심사업을 패키지화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연계 지원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남 4개 농공단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14억여 원, 도비 27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91억여 원 등 총 306억 원이 투입된다.

보성 미령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무안 일로는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을 진행한다. 강진 마량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진도 고군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열악한 농공단지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대상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및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타 산업단지에 비해 불리한 여건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9년부터 관리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농공단지(28개소) 시군에 대해 향후 농공단지 입주 및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현재 64개소 중 59개소의 수립 완료하는 등 행정적 절차 이행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영암 대불 국가산단 등 11개소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여수 국가산단 등 4개소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문화·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양승주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남녀공학 전환학교 지원 확대

서울 중·고등학교 34% 단성학교
공학 개편시 시설 개선사업비 등 지원

아울러 공학으로 전환하며 학생 생활지도 등 학생 상담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항목도 신설해 3년간 9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성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운영비 6억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양성평등 교육 실현 등의 요구가 커지며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 서울에 위치한 전체 중·고등학교 708교 중 단성 학교 비율은 241교로 34%를 차지한다. 전체 중학교 390교 중 단성 중학교 수는 90교(23.1%)이며, 전체 고등학교 318교 중 단성 고등학교 수는 151교(47.5%)이다.

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시설 개선사업비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인건비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시설비는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교육과정 운영비는 3년간 6억원 투입된다.

이처럼 교육청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단성 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학교별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일부 학생의 통학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등 배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남녀 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지속돼 학생 및 학부모가 기피 하는 학교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양성평등교육 실현과 학생 생활지도의 교육적 효과, 지역별·학교별 선호·비선호 학교 간 격차 완화와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현진 기자 ihj@

경북도, 2034년까지 벤처투자펀드 1조 조성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회 넓혀
혁신기술 창업·연구개발 지원

경북도가 2034년까지 1조원 이상의 '경북G-스타펀드'를 조성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펀드는 경북도가 출자하는 모든 벤처투자펀드로, 도내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자 추진된다. 2028년까지 5000억 원 이상, 2034년까지 1조 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125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G-스타밸리'(포항벤처밸리, 경산임당유니콘파크, 구미스타필드 등 경북 혁신벤처기업 단지)의 혁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맞춤

형 투자를 지원한다.

경북도가 60억 원을 공동 출자한 2개 펀드는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1차 정시 모태펀드 출자 공모에 선정됐다.

선정된 펀드는 대경기술지주&와이앤아처(펀드주관운용사)가 신청한 '지역창업초기펀드'와 경북과 전남이 연합으로 신청한 '지역혁신벤처펀드'다.

이들은 모태펀드 209억원을 포함한 359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모태펀드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 의사결정은 전문기관 한국벤처투자 담당한다.

경북과 전남이 연합으로 신청한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펀드 179억원과 함께 모펀드(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 299억원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 다시 9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960억원 정도가 결성돼 경북도의 올해 목표 1250억원의 77%가 달성됐다.

현재 경북도는 6개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해 1555억 원을 조성한 상태로 경북 혁신 벤처기업 139개 사에 672억 원을 투자했다.

경북도는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기반 구축, 연구 개발 및 글로벌 진출 등 생애주기에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G-스타 펀드 조성 목표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해 혁신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서울시, 올해 '전기 오토바이' 1052대 보급

배달용 보조금 10% 추가지원

정된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고, 배달용은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과 주박가 소음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이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배달용 보급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

50인 미만 산재 취약업종 대상
무료 맞춤형 상담, 개선방안 제안

서울시가 50인 미만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

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 25명의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복지서비스 ▲건물관리 ▲위생·유사서비스 업종이다. 올해는 최근 3년 간 서울지역 사고 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이 추가됐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일 (화) 음력: 2월 24일

수도권 날씨 8 ~ 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3/23, 동두천 4/23, 가평 3/23, 파주 3/22, 서울 8/23, 양평 5/23, 수원 9/22, 용인 9/22, 평택 5/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ISIS-K, 모스크바 이어 유럽 노린다...파리올림픽 공격할 수도"
▲나토, 이번주 외교장관회의 개최...韓 3년 연속 참석 /사진 뉴시스

▲'축출 위기' 美공화 하원의장...민주당이 동아줄?
▲킨타나 전 아르헨 의원 "김치 사회적 가치 반영해 기념일로" /이현진 기자



▲한중 청년에게 정책 제언 듣는다...2회 후호증진단 본격 활동
▲금값, 또 최고치 경신...美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사진 뉴시스



외식업계
맵부심 저격
신제품 '봇물'
니



Life

KGC인삼공사
대표이사에
안빈 글로벌본부장 선임
L2



약자 돕고, 금융교육 지원... “내일의 희망 ‘쑥쑥’ 키워요”



키움증권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고 있는 키움증권은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부터 교육·장학 지원, 지역사회 발전 등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 같은 노력을 인정 받아 지난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 종합 'B+' 등급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올해도 조직개편을 단행, ESG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 1월 ESG 추진팀을 신설,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사내 사회공헌단 키움과나눔...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

키움증권의 사회공헌 활동은 2012년 출범한 '키움과나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키움증권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으며,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이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오고 있다. 키움과나눔은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등 3개 파트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각 파트는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적인 나눔을 추구한다.

청소년 파트는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일상생활 유지와 정서 발달 및 자립 지원 등을 후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퇴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 봉사활동 및 기관 후원도 진행한다. 또 저소득 미혼모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장애인 파트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장애인들의 육체·정서적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실내 운동기구와 야외 그네, 트램펄린, 승합차 등을 지원했으며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활동인 '키움앤조이 스킵'은 조이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디자인 및 공예 등 개인 특성에 맞는(자폐, 강박 등) 구조화된 일상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명절 음식, 급식, 생필품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교체, 청소 등 집수리 활동 봉사와 노후 주변 환경 개선(벽화 그리기), 거주 공간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

키움증권 사회공헌활동 주요 내용



자료/키움증권



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채준 한국재무학회장이 12일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25기 정기 주총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키움증권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파트 나눠 자립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 사회적 약자에 지속적인 나눔 추구

초등학교와 결연 맺고 금융교육 재무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후원

화석연료 줄이고, 친환경차 도입 페이퍼리스 캠페인 등 자원사용↓

돼 있다. 키움증권은 지속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자립 희망을 키우고 있다.

◆금융교육, 후원금 지원 등 교육 지원 나서 금융교육, 후원금 지원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키움증권은 어린이들의 금융지식 이해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초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2개 초등학교로 시작해 7개 초등학교와 연계하는 등 교육 횟수 및 학교와 학급수를 늘리고 있다. 감독원이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 '강사 연수에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금융교육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결연 학교와 학급수 확대로 더 많은 어린이에게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한국재무학회와 협약을 맺고 국내재무전공 박사과정 연구원들을 후원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12일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한국재무학회와 박사과정 전연연구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키움증권은 키움후원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2억원씩 5년간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키움후원기금으로 한국재무학회는 5년간 국내 재무전공 박사과정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재무·금융 관련 연구 활성화와 학술 세미나를 통한 최신 동향 파악 등 산학협력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활동 및 주주 환원 등 ESG 경영 활동 강화

키움증권은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사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량을 도입해 왔다. 기존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거 교체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키움증권은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페이퍼리스(Paperless) 캠페인을 실시해 업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이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태블릿PC 도입, PC의

노트북 전환 등 이동 가능한 기기를 지급하고 그룹웨어 모바일 연동 시스템과 문서 통합 솔루션 등을 도입해 회의, 보고 등 일상 업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출력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키움증권은 에너지 사용 효율화 일환으로 사무실 적정온도를 관리하며, 점심시간 등기구 소등 등의 캠페인을 펼쳐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주주 환원 강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미 취득한 자사주 209만5345주(발행주식의 7.99%)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3분의 1씩 소각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목표 주주환원율을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2026년 이후에도 3개년 단위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키움증권의 한 관계자는 "1월에 신설한 ESG추진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ESG 경영과 활동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내일을 위한 키움과나눔'이라는 캠페인 주제에 맞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500명 돕기',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등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회공헌에 중점을 둔 ESG 활동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손흥민, BBC '베스트11' 포함...“그가 없었다면 토트넘 침몰” /사진 뉴시스
▲거스 히딩크 감독, 서울시향 첫 홍보 대사 위촉

▲K팝부터 호미까지...관광공사 '한국 방문의 해' 팝업
▲국립중앙박물관, 4월 매주 수요일 밤 '큐레이터와의 대화'



▲전문가들 “야 강호 재건하려면 명확한 목표 설정해야”
▲김하성과 맞대결 '장군 명군'...이정후, 이번엔 오타니 만난다 /사진 뉴시스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도서관이 없어 마음껏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시작한 KB작은도서관 프로젝트가
어느덧 116곳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마을에 새로 들어선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마을 어르신들의 정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곳

올해도 KB작은도서관은 9곳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늘 곁에, 더 가까이
KB국민은행

영월 '월담' **도서관**
KB국민은행

KB작은도서관이란?

KB작은도서관은 평소 책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KB국민은행